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璟 培

基督教 家庭 子女의 信仰教育 特性에
관한 研究

A Consideration for the Characteristic of Belief Training
of the Christian Children

1 9 9 7 年 8 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 育 行 政 學 科

教 育 行 政 專 攻

張 恩 玉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璟 培

基督教 家庭 子女의 信仰教育 特性에
관한 研究

A Consideration for the Characteristic of Belief Training
of the Christian Children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8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 育 行 政 學 科

教 育 行 政 專 攻

張 恩 玉

張恩玉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1997年 8 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目 次

I . 緒論	1
1.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연구의 내용	2
4.연구의 방법	3
5.연구 제한점	3
II . 理論的 背景	4
1. 성경에 나타난 가정의 기원과 본질	4
2. 성경에 나타난 가정의 목적과 교육적 역할	10
3. 기독교 가정의 문제점	20
4. 가정의 어린이 신앙교육의 필요성	23
III. 先行研究考察	27
IV. 資料 分析의 結果 論議	29
1. 문항별 자료분석 결과	29
2. 전체 항목별 분석 및 결과논의	85

V. 要約 및 結論	88
1. 요약	88
2. 결론	90
參考 文獻	93
<부록>	97
Abstract	103

表 目 次

(표 1) 부모의 교회출석 여부에 관하여	30
(표 2) 부모의 교회결석 이유에 관하여	32
(표 3) 자녀의 교회출석 여부에 관하여	34
(표 4) 자녀의 교회결석 이유에 관하여	36
(표 5) 자녀가 교회가기 싫어할 때의 부모 태도	38
(표 6) 가정예배에 관하여	40
(표 7) 기도내용에 관하여	42
(표 8) 기도응답에 관하여	44
(표 9) 성경읽는 습관에 관하여	46
(표10) 성경읽을 때 성경지식에 관하여	48
(표11) 찬송생활에 관하여	50
(표12) 자녀와의 대화에 관하여	52
(표13) 자녀와의 관계중 실망에 관하여	54
(표14) 실망시킨 이유에 관하여	56
(표15) 부부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58
(표16) 어린이 신앙교육에 관하여	60

(표17)	가정에서 기독교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이유	62
(표18)	교회학교 교육관심에 관하여	64
(표19)	교회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에 관하여	66
(표20)	교회학교 확인학습에 관하여	68
(표21)	교회학교 교사의 만족도에 관하여	70
(표22)	교회학교 교사의 심방에 관하여	72
(표23)	교회학교 교사의 심방횟수에 관하여	74
(표24)	교회학교 교사와의 상담에 관하여	76
(표25)	부모교육에 관하여	78
(표26)	부모교육의 횟수에 관하여	80
(표27)	교회의 가정교육에 관한 자료제공 여부에 관하여	82
(표28)	교회로부터 제공받기 원하는 프로그램에 관하여	84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가정은 인간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사회이며 또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인간에게 모든 생활의 기초이며 시작인 동시에 건강하고 풍성한 삶의 원천이 되는 곳이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은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즉 도시화, 전문화, 산업화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적 역할을 상실하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기능도 많이 약화 되었다.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의 권위와 어린이 신앙교육이 목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어린이를 어떻게 기르고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어린이 교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확신이나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가정에서는 교회와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만 어린이의 신앙교육을 맡겨 버리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기독교 가정에서 어린이의 신앙교육을 시키고자 할때에 부모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이며 더구나 기독교 가정에서의 가정교육자체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를 위한 교회의 목회는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며 가정에서 어린이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교회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는 것도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부모는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이 부모의 책임이라기 보다

는 교회학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자녀의 신앙성장이 교회와 교회 학교에 다니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기독교 가정의 자녀신앙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다.

2. 연구의 목적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의 올바른 신앙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과 가정은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교회는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첫째, 신앙교육의 장(場)으로서의 가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가정과 교회의 협력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셋째,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 신앙교육을 위한 새로운 신앙교육의 장(場)을 제시하는데 있다.

3. 연구의 내용

첫째, 기독교 가정의 신앙생활은 부모들의 배경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 보고

둘째, 기독교 가정의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은 부모들의 배경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고

셋째,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교회 신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밝혀 본다.

4. 연구 방법

기독교 가정의 어린이 신앙지도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원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연구를 병행하였다.

1) 본 연구 이론적 배경은 각종 참고문헌과 연구자료들을 통하여 정리하였고,

2) 실태조사는 기독교가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목원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88년)논문의 “기독교 가정 교육에서의 어린이 교육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표집은 서울지역에 있는 교회 12교회 400명을 대상을 표집하였다. 질문지 회수율은 12교회 258명 (64.5)%이 응답하였다.

3)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검증방법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백분율과 χ^2 -test통계처리하였다.

5.연구의 제한점

첫째, 기독교 가정의 어린이 중 6~11세(유치원 ~ 초등학생)로 한정하였다.

둘째, 기독교 가정의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연구 하였으므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해석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II. 理論的 背景

1. 성경에 나타난 가정의 기원과 본질

1) 가정의 기원

기독교 가정의 시작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기독교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조기사들은 우리에게 가정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¹⁾

“가정”이라는 단어 앞에 “기독교”라는 단어를 씌우므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 가정과는 많은 의미가 달라짐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기독교 가정”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자연적, 심리적, 또는 사회적인 용어를 뜻하는 것을 넘어서 가정을 창조 하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²⁾

구약에서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도구로 여기고 있다. 가정은 하나님으로서 뜻이 구체적으로 전달되고 생활화되는 곳이었기에 종교적 공동체의 가정은 교훈과 예배를 통해 과거의 전승을 보존해 나갔으며,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종교교육의 살아 있는 현장으로서 자녀들을 신앙안에서 보호하고 양육하였다.³⁾

1) 창세기 1: 26~28

2) 함성환. 현대교회와 가정교육, (서울:도서출판 그루터기, 1984), p. 59.

3) 김윤기. 가정생활의 변화를 위한 설교연구, (목원대학 신학대학원석사논문, 1990), pp. 6~7.

또한 신약시대에서의 가정은 구약성서의 기초위에 이루어졌으며 예수님과 바울의 가정관을 통해 바른 이해에 접할 수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4 ~ 6에서 (창 1:27, 2:24절을 근거로 함) 창조질서와 관계를 지어 결혼과 가정의 신성함을 강조 하였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듯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받은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곧 기독교 가정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가정의 본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의 결혼과 그 결혼으로 인해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가정생활은 비기독교인과는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삶을 영위해 간다.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에서부터 결혼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 삶을 영위하다 죽음에 이르기 까지를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두며, 그 모든 생활은 일반적인 인간관계 중에서 하나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다.

기독교인의 부부와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이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르는 것이다. 창조의 섭리 가운데 제정하신 결혼을 매개로 해서 조직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세계를 운행하심을 기본단위로 삼으셨다.⁴⁾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중 많이 사용된 단어는 계

4) Emile Brunner. The Divine Imperative, (London:Lutter Worth Press, 1958), P. 345.

약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계약의 동반자로 허락하셨다.

기독교인 부부와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교회와 그리스도의 계약관계이다.

구약성서 기자는 계약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결혼안에서의 남녀의 사랑과 자주 비교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신실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다. 이것은 결혼을 통한 새로운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앞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심했지만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것과 같이 그들의 삶이 결혼을 통한 가정생활이 서로를 사랑하고 인내하며,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은 사랑의 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로 본다. 기독교 가정은 창조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가정은 교회 신앙공동체가 생기기 전에 생겨난 가장 작은 단위의 신앙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의 근원이며 원형이 된다.⁵⁾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없이는 인간생활을 생각할 수 없다. 부르너에 있어서 가족공동체는 인격적 존엄성과 사명의 동등성이 있는 곳이다. 가정안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신은 동등한 인격적 존엄성과 상호 책임적인 관계가 있다. 부르너는 이러한 것이 사랑의 기초위에 서게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가정이란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법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안에서 인격적 존엄성과 책임성 동등성이 결합되어 있는 곳이다.⁶⁾ 또한 기독교 가정은 언약공동체의 특징이 있다. 창세기 17장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를

5) 전풍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 1987), p. 28.

6) E. Brunner. 정의사회 질서. 전택부역, (서울 평민사. 1976), pp. 187~189.

바탕으로 인간에게 제정해주신 것이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 또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 여기서 또한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 근거해서 이삭이 태어난지 팔일만에 할례⁷⁾를 베풀므로 언약의 자손임을 확인시켰다.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녀를 얻은 영광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있다.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미 그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 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언약아래서 태어난 언약의 상속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⁹⁾

가정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교육적인 면을 배제할 수 없다. 성서에 나타난 가정은 처음부터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온상이었고, 부모는 교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훈련하였다.¹⁰⁾ 구약 신명기(6장 4-9절)에 보면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쓰여 있다.

어디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은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정해 주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의무를 가지고 있다.¹¹⁾

7) 할례. 「남성 음경의 표피를 절제하는 의식」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사이의 언약의 증표로서 제정된 의식이다(창17:10).

8) 변영인. 가정사역의 필요성과 그 현황에 관한 연구,(고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p. 15~16.

9) Norman E. Harper 제자훈련을 통한 현대 기독교교육. 이승구역, (서울 : 엠마오 1984), pp. 58~60.

10) 전풍자. 「전계서」 p. 28.

11) Edward J. Hakes. 기독교 교육학 개론, 정정숙 역, (서울:성광문화사. 1979), pp. 141~142.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에게 교육할 책임을 가진 부모들의 역할은 세상의 어떠한 교육기관이나 교육자의 그 어떠한 것에 비할 수 없다. 기독교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들은 기독교 가정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가장 근원적인 학교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가정은 기독교인이 직접 생활하는 학교이고,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모든 세대의 보육실이고 인생대학이며 자녀들의 훈련 장소이다.¹²⁾

위와같이 가정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알아 보았으나 이외의 여러 가지 특징적인 본질들을 살펴보면 가정은 인간 형성의 최초의 중요한 교육의 장(場)이다. 인간은 누구나 가정이라는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삶의 기초적인 행동양식을 배우고 인격을 형성해 간다.¹³⁾ 교육기관이 생기기 이전에는 가정이 교육을 책임지는 유일한 장소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로서 자녀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수행했었다.

기독교 가정은 인격 형성은 물론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작은 천국ियो. 교육의 장(場)인 것이다.¹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과 온전하심을 우주에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가정은 사회 생활의 첫번째 교육 장소이기도 하므로 근본적인 가치 체계를 형성시키는 장소이기도 한다.

과학화와 기술화의 심각한 부산물로 세속화의 문화는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가고있다. 급격하게 변해가는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부터 우리의 가정은 공업화와 도시화라는 물량적 변화 가정에서 자극을 받아 고도의 개인주의와 실리주의로 바뀌고 있다.¹⁵⁾

12) 「상계서」 p. 494.

13) 전풍자. 가정 교육론, (서울:기독교교육협회. 1984), p. 179.

14) 정수자·이은숙. 기독교 가정 교육학, (엠마오. 1987), p. 40.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가정은 존재 가치부터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질서나 영화의 보존만을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행복은 경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육욕이나 물질적인 것을 떠나 어려움과 궁핍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머리삼고 성령으로 더불어 역사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뜻을 높여 서로 이해하고 그 가정 자체의 이익을 위해 존립한다기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회적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가정은 주의 뜻과 말씀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한다.¹⁶⁾

가정의 기본적요소를 알아보자.

첫째, 가정의 행복 공동체라는데 있다. 가족은 하나라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회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협력하고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다. 즉 의견도 노력도 하나로 결속된 관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주실 때 두 사람이 합하여 하나된다고 축복하신 데서 비롯된 것이다.¹⁷⁾

둘째, 가정의 행복은 위안을 주는 곳이라는데 있다.¹⁸⁾ 가정은 정신위생의 가장 좋은 요양원이다. 가정은 가족들이 서로 염려하는 일을 분담하고 인내하고 허물없이 나눔으로 치료책을 갖는 작은 교제권이다.¹⁹⁾

셋째, 가정의 행복은 사랑에 있다.

넷째, 가정의 행복은 보전성(존속)에 있다.

다섯째, 가정의 행복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있다.²⁰⁾

15) 정수자·이은숙. 「전계서」 p. 41.

16) 「상계서」 pp. 41-42.

17) 「상계서」 p. 42~43.

18) 「상계서」 p. 43.

19) Robert Schuller. 행복한 가정 창조의 비결. 권명달 역, (서울: 보이스), p. 21.

20) 정수자·이은숙. 「전계서」 p. 43~46.

이와같이 기독교 가정이야말로 중요한 교육 현장임을 알 수 있고, 가정은 곧 관계이며, 생리적 관계요, 신앙의 공동체는 구속적 관계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종합예술임을 의미한다.

2. 성경에 나타난 가정의 목적과 교육적 역할

1) 기독교 가정의 목적

가정은 창조의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 1:27 ~28)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일부로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정에 대하여 독특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특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아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

전전한 가정에서는 한 개인 개인 모두 존중을 받는다. 학교에서 혹은 놀이터에서 교사나 친구들에게 어떠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린이는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귀중한 존재이며 한 개인의 개성을 인정받는 곳이다.²¹⁾

어린이들의 안정을 위하여는 그를 완전히 존중하며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관심을 포함한다. 어린이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살아가는 방법과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사랑을

21) L.V CULLY. 어린이와 교회와 기독교교육, 서광선 역,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5), p. 84.

받을때 사랑을 배운다. 사랑에 보답한다는 것은 자연이다. 또 여기에 생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지으실때 그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때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²²⁾

가정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며, 또한 그 사랑으로 서로 서로를 대하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다. 사회는 나혼자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이 개인을 만나 도시를 형성하고 또한 국가를 형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일차적인 사회집단이 가정에서 대인관계를 배우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가정에서 큰 어린이와 작은 어린이의 사이에도 서로 질서와 돕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그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인 협동심과 또한 스스로 할수 있는 자신감을 배우며 남의 실수를 용서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²³⁾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자녀가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 생활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속에서 그들은 독립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또한 가정안에서의 인간 관계는 종속 관계가 아닌 의존 관계임을 배우고 서로 섬기며 섬김을 받는 생활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²⁴⁾

위와 같이 L.V Cully 는 종족보호, 자녀의 보호와 양육등 삶의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곳이 가정이라 말하고 있다. 정정숙 교수는 가정의 목적을 한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우선으로 보기 보다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가정의 목적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22) 「상계서」 p. 85.

23) 「상계서」 p. 86~87.

24) L.V CULLY 「전계서」 p. 87~89.

첫째,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가정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학적으로 가정은 목적을 대하여 종족보존, 자녀의 보호와 양육, 애정적결합, 경제적 생산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가정은 종족보존이나 이해와 사랑과 교제를 제공하는 장소는 물론이요 더 나아가 가정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²⁵⁾

기독교 인이 살아가는 일차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 전서 10:31) 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 가정은 일반가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땅에 실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가정이다.²⁶⁾ 하나님 나라 확장이란 즉 이땅의 천국과 영원한 나라인 하늘 나라를 말하고 있다. 한 개인 개인이 모인 가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에서 천국을 이룬다면 한 가정 한가정이 모여 더 많은 천국이 이땅에 이루어지며 영원한 하늘나라도 더 커지기 때문이다. 나만의 천국이 아닌 믿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함으로 인해 더큰 천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셋째, 신앙의 훈련장으로 서의 가정이다. 기독교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으로 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날때부터 죄인이다. 한편 가정은 그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

25) 정정숙. 성경적 가정 사역, (서울:도서출판 베다니. 1994), pp. 77~82.

26) 정정숙 「전세서」 p. 104.

파괴되어져 가는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필요하다.²⁷⁾

기독교 가정은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가족의 신앙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가족의 개인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앞의 삶을 깨달아 그 삶을 신앙행위로 이어져 행해져야만 한다.²⁸⁾

넷째, 종족보존을 위한 가정²⁹⁾

가정은 종족 보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가정은 신앙의 계승을 위한 목적이 있다. 인종적인 면에서 종족을 보존할 의무가 있듯이 영적 의미에서 종족보존의 의무가 있다.³⁰⁾

성경을 통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고 종족 보존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들은 하나님의 대리 창조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종족 번식은 결혼과 가정의 계속적인 목적이며, 그것은 정당한 결혼, 정상적인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다.³¹⁾

다섯째, 문화사명 담당자로서의 가정.³²⁾

문화적 사명(Cultural Mandate)이라는 명령은 축복의 형식을 가지고 있

27) 「상계서」 p. 79.

28) Larry Christenson. 크리스찬의 가정생활, 김용순 역, (서울:보이스사, 1982), pp. 239~240.

29) 마은희. 유아를 위한 기독교 가정교육, (충신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4.), p. 14.

30) 정정숙. 「전계서」 p. 80.

31) T.B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이석철 역, (서울 : 요단출판사. 1991), p. 54.

32) 마은희. 「전계서」 p. 15.

다.(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³³⁾

기독교 가정은 이 세상에서 고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역할을 뚜렷하게 하는 존재이다. 기독교가정은 여러분야에서 접촉하고 있으며, 국가, 학교, 교회 그리고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³⁴⁾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문화적 활동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기독교 가정은 이러한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며 문화적 사명자로 활동하게 하기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곳이 기독교 가정이다. 문화란 가능성이 아니라 당위성이다. 그리스도인이 문화에 종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⁵⁾

기독교 가정은 각자 개인 개인이 문화 사명자로서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땅에 나타내야 한다.³⁶⁾

이렇듯 문화사명자로서 일을 감당하기위해서는 중생의 체험과 성령 충만함을 늘 체험하며 삶의 중요 전분야에서 중생 문화의 건설이 있어야 한다.³⁷⁾

여섯째, 성적욕구를 정당하게 표출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³⁸⁾ 결혼을 통해 닫혀졌던 성적욕구를 정당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바울은 독신을 주

33)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부산 : 고신대 출판부. 1972), p. 163.

34) 정정숙. 「상계서」 p. 80.

35) Henry R, Van Til ;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Philadelphia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59), p. 222.

36) 「상계서」 p. 222.

37) 김남식. 기독교에서 본 문화, (서울 :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1972), p. 17.

38) 정정숙. 「전계서」 p. 105.

장하면서도 성적욕구를 절제할 수 없을 때는 결혼할 것을 말하고 있다. (고전 7:8-9). 이렇듯 성적욕구는 우리들에게 닫혀지고 숨겨야만 했던 것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드러내어도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2) 기독교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가정은 교육의 현장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정에서 그의 인격이 형성된다. 사람의 가치관, 인격, 태도, 습관 등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보고 듣고 배운다. 어렸을 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자녀의 마음에 그대로 그려져 지워지지 않는다. 태어나서 5~6년간은 그의 인격형성에 결정적 시기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다³⁹⁾

가정이 단순히 자녀들을 신체적으로 보호하고 자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삶의 가장 기초적인 행동양식과 인격을 형성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Comenius (1592-1670)는 유아기 교육의 장(場)으로서 가정을 ‘따뜻한 봄 여러가지 꽃의 향기가 가득한 계절’에 비유하였다.⁴⁰⁾ 그는 어린이가 태어나서 6세까지의 유아기를 ‘어머니 무릎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습의 장(場)’이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⁴¹⁾

자녀는 가정에서 다른이가 아닌 부모의 품에서 혹은 무릎에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세상의 지혜를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다.

39) 총회교육국,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대한예수교장로회. 1994), p. 20.

40) Comenius. 대교수학, 정확실 역, (서울:교육과학사. 1989), 제27장. p 9.

41) 「상세서」 제27장 p. 8.

기독교 가정의 자녀와 부모 또한 가르침과 배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다.

기독교 교육은 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Christ like) 인격형성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실존적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도⁴²⁾하되, 기독교 공동체 안에 참여하여 생기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요, 자기이해와 자아의식에 대해 더 많이 알게하여 자신의 가능성 실현을 증대시키는 것이다.⁴³⁾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학교요, 작은 교회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파괴된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가 제거된 것 뿐만아니라, 생활의 기본적인 능력들을 도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⁴⁴⁾

가정교육은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한 원천을 마련해 주고 교회봉사와 사회공헌의 기초를 형성해 준다.⁴⁵⁾ 가정이 없이는 교회도 국가도 있을 수 없으며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질서는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⁴⁶⁾

42) Lewis Joseph Sherrill, The Gift of Power, (New York : The Macmillan Co., 1967), p. 82.

43) 방현덕, 기독교 가정 교육론, (바울서신사 1993.), p. 51.

44) 오인택, 기독교교육, (서울:종로서적주식회사, 1984), p. 3.

45) 주선에 “교회교육에 있어서의 부모교육 「교회교육」 통권 92. (서울 : 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교육연구원 1983. 5월), p. 241.

46) 방현덕, 「상계서」 p. 55.

윌리엄구드(William Goode)는 모든 사회에서 종교를 제외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단 하나의 사회제도가 가정이라는 점만으로도 그것의 중요성이 증명된다고 한다.⁴⁷⁾ 뿐만아니라 교육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코메니우스(Comenius), 루소(Rousseau), 프뢰벨(Fræbel), 페스탈로찌 등은 한결 같이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 교육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⁴⁸⁾ 호레스 부쉬넬(Horace Bushnell)은 가정과 종교는 같은 종류의 단어라고 했다. 가정은 종교의 토대이며 또한 종교는 가정의 신성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붕이 없는 집은 종교가 없는 가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또 그는 기독교 교육이 진실로 가능한 현장은 가정이다.⁴⁹⁾라고 했다.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이 우주 가운데에서 유일하고도 특별한 존재임을 배워야 할 장소이다.⁵⁰⁾ 그러므로 가정에서 안정과 신뢰를 경험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의 장(場)으로서의 가정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⁵¹⁾

그러면 부모는 가정에서 어떠한 역할로 자녀로 양육해야 할 것인가. 부모는 가정에서 교사와 부모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가정은 기도하기를 배우는 최초의 교회요 말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규칙을 배우고, 남을 사랑하기를 배우는 최초의 학교다. 인생의 교과는 배움의 교과요. 그 교과의 제 1과는 가정에서 배우게 된다.⁵²⁾ 자녀는 가

47) William. J. Goode, The Family, (N.J:Prentice Hall, 1961), p. 4.

48) 김천일. 교육원리(서울:학문사, 1973).

49)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76), pp. 211~214.

50) Edith Schaeffer. 가정이란 무엇인가. 양은순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1), pp. 16~23.

51) 김재은. 가정교육, (서울 : 조선일보사회부, 1981), p. 9.

52) 「상세서」 p. 9.

정의 울타리속에서 부모로부터 인생을 배우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비로소 인간답게 자라나게 된다. 부모로부터의 교육이 없다면 인간을 짐승과 별다를 것이 없다.

성서에 나타난 가정은 처음부터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온상이었고, 부모는 교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훈련하였다.⁵³⁾

루터는 신명기 32:7, 시편 78:5~8을 인용하면서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며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다.⁵⁴⁾ 이것은 구약시대의 히브리 가정에서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전달되고 생활화 되는 종교적 공동체로서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살아있는 현장이 되었던 것⁵⁵⁾처럼 오늘날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도 부모로써 또한 교사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일을 주요과제로 삼아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훌륭한 교사이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교육하기에 좋은 시청각 교제는 결국 부모 자신의 삶의 자세이다.

교사로서의 부모의 역할, 또 교육의 기능과 여러가지를 알아 보았는데 교육하기에 좋은 가정환경은 과연 자녀교육에 어떠한 결과와 효과가 있는 것인가? 삐아제(J. Piaget)는 유아기 경험이 인간의 지능발달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데 이 경험은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⁵⁶⁾고 했다.

우리가 환경이라고 할 때 그것은 자연적 조건, 상호 인간관계, 속해 있

53) 전풍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기독교교육 1987. 5월호), p. 28.

54)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79), p. 118.

55) 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 Macmillan Co., 1944), pp. 17~18.

56) 방현덕. 「전계서」 p. 60.

는 집단, 집단의 교육방법, 시설, 비품 등을 말한다. 인간의 성격형성, 지성과 신체와 개성의 발달, 그리고 심리적 특성의 대부분이 이와같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⁵⁷⁾

가정환경은 이와같이 개인의 성장, 발달 및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가장 현저한 시기에 놓인 어린이의 대부분의 생활공간을 이루고 또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정은 학교, 교회, 사회에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⁵⁸⁾ 자녀들은 가정생활을 통해 태도나 가치관이 형성되며 사회생활을 통해 점점더 정립되어 진다. 가정환경은 개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기초 환경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바른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레이쓰(Raiths)는 인간에게 소속, 성취의지, 경제적 안정, 공포로부터의 자유, 애정, 자기존중, 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 등의 욕구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정서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적개심, 무관심, 후퇴, 고립 등의 정서적 장애가 생긴다고 한다.⁵⁹⁾

이러한 욕구의 기본이 인간에게 있어 최초의 교육의 장(場)인 가정에서 충족되어진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 인간발달이 이루어 짐을 볼 때 가정은 인간에게 있어 특히 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에게 있어서 기초가 되며 그 가정의 환경이 중요함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가정은 계속 유연성과 융통성을 구비한 안식처로서의 환경⁶⁰⁾을 준비하여 긴장완화의 기능을 감당할 뿐 아니라 기독교적 자녀

57) 함인순. 유아교육원리, (서울 : 동문사, 1982), p. 26.

58) 유효순·정원식. 부모교육,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84), p. 144.

59) Lovis E. Raiths, An Application to Education of the Needs Theory, H. Fleck, Toward Better Teaching of H.E., (The Mac Millan Co., 1968), pp. 38~39.

60) 榕宗省三. 子どもの 社會心理, (東京 : 金子書房, 1982), p.12.

관을 정립하여 하나님의 선물이요 상급인 자녀들을 주안에서 양육하여야
겠다.⁶¹⁾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허락하신 교육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
해서는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아니해야 하며 교사된 부모로
써의 위치와 허락하신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야 겠다.

자녀들의 바른 삶은 바로 부모의 삶을 통한 모방에서 부터 이뤄지기
때문이다.

3. 기독교 가정의 문제점

사회제도중 원초적 제도인 가정은 인류사와 그 역사적 맥을 같이 하며
놀라운 발자취를 남겼다.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적 기관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의 가정관은 가정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
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기독교 교육이 진실로 가능한 현장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호레스 부
쉬넬은 한마디로 가정이라고 말했다.⁶²⁾ 부쉬넬이 말하는 가정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기독교 가정을 말한다.

가정을 사회제도의 하나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가정에 대해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가정이란 성적결합, 결혼, 출생, 육아 그리고 사회화를
위하여 존속한다고 보고있다.⁶³⁾ 이러한 관점은 가정이란 인간의 기본적
인 생물학적 단위이고, 가정은 보다 넓은 세계에서 살아가도록 그 적응

61) 방현덕. 「전계서」 p. 62.

62)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8), p. 211.

63) Bert N. Adams, The Family :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80), p. 1.

능력을 훈련시켜야하는 사회학의 단위라고 보고 있다.⁶⁴⁾

부쉬넬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두 기본적 매개가 있다고 믿었다. 하나는 회심의 과정으로 어른들이 신앙과 경건으로 돌아오는 길을 뜻했고, 다른 하나는 가정이 가지는 힘으로써, 이 힘은 가정 구성자들의 신앙과 경건을 불러 일으키는 힘 자체라고 이해하였다. 자녀들의 습관,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⁶⁵⁾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 현대들어오면서 기독교 가정뿐만아니라 일반가정 또한 자녀 교육이 잘 되어지지 않고 있다.

기독교 가정은 이상적 공동체의 꿈을 안고 있다. 기독교 가정은 사랑이 넘치고 웃음과 평화가 있으며 찬송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오늘의 사회는 기독교 가정을 이상적 공동체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문제 속에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가정은 과거의 가정이 지녔던 가정 본래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오늘날 집(house)은 있어도 가정(home Family)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정의 위기와 붕괴를 느끼게 하고 있다.⁶⁶⁾ 이러한 현대사회의 현상은 가정으로 하여금 교육을 포기하고 교육을 전문기관에 맡겨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⁶⁷⁾

현대의 사회변화는 가족형태에 있어서 변화를 주고 있다. 핵가족 형태는 기동성과 실용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문제, 자녀양육문제, 가사담당 문제 등 여러가지 약점들이 노출되고 있다.⁶⁸⁾

64) 「상계서」 pp. 6~7.

65) 은준관. 「전계서」 p. 211.

66) 김은산. 오늘의 가정은 어디에, (새가정 제 259호. 1977년 5월), p.147.

67) 오인택·은준관·정웅섭·고용수·김재은(편저). 기독교교육론,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협회, 1985), p. 188.

68) 김주숙. 사회변화와 가족형태, (기독교사상 1985. 5월호), p. 44.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상황들을 대응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기독교 가정이 사회제도로서가 아니라 신적 기관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즉 신적 기관으로서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종말에 가서는 창조와 은총의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적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신적 존재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잃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화 시대가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 그것은 기독교 가정이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사회이기 때문이다.

개인적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에배는 줄고 자녀들은 학업(성적) 때문에 교회생활과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들은(비기독교인포함) 더 나은 상급학교 진학을 기본 목표로 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물론 전인 교육또한 뒤로 쳐져 있는 상태이다. 바른 인격적 성장이 있어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본인들이 살아온 삶을 보상받기 위해 자녀를 전이적으로 교육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보상심리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땅에서 왕적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신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셨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말씀하신다.

오늘날 일부 크리스찬 부모가운데 자녀에게 소리와 사랑의 매 또한 들어보지 못한 채 사랑이라는 거짓된 모양으로 양육하는 이들도 있다. 그

릇된 사랑이 자녀들의 잘못을 바르게 통제하지 못하고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부모의 징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훈계하고 바르게 훈련시켜야 하는데 그 사명을 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하나님이 호주되어야 하는 기독교가정이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도 아닌 자녀들로 바뀌고 있다. 가장의 권위가 떨어지고 어느덧 자녀들이 표준이 되어 그 가정을 기준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며 그 가정의 표준이 자녀가 아닌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시대 양상은 하나님을 표준으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⁶⁹⁾

부모는 하나님께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아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리는 일과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대의 기독교 가정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 가정의 어린이 신앙교육의 필요성

제임스 파울러(James W.Fowler)의 신앙발달론은 삐아제나 콜버그의 구조주의적 방법과 에릭슨의 심리사회적인 관심을 기초로하여 전개된 이론이다. 그에 의하면 신앙이란 어느 한순간에 생겨서 완성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정신속에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가진씨와 같은 것으로

69) 변한규. 짚막한 신학(1), (서울:한국로고스연구원. 1990), p. 266.

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서 몸과 정신이 성장하고 발달해 감에 따라서 서서히 자라서 성숙한 신앙으로 발달해 가는 것이다.⁷⁰⁾

신앙은 인간의 삶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신앙은 인간의 희망과 노력, 사고와 행동에 목적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한다.⁷¹⁾

신앙성장은 인간에게 있어서 평생 계속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 신앙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자녀의 신앙교육에 무관심하거나 교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다.

기독교 가정이란 신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을 지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을 잘 다스리고, 훈계하고, 훈련하고 가르쳐야 한다.⁷²⁾

Sherrill에 의하면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공동체의 공동사업으로 개인이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와, 자연계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과업이다.⁷³⁾

자녀들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적 사명을 감당함으로서 이루어진다. 부모들은 가정에서의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가정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관하여 성경 신명기 6장 4절~9절과, 디모

70) 손승희, 기독교 교육의 발달이론적기초 『기독교 교육론』 (서울: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4), p. 115.

71) James W. Fowler, Stages of Faith, (San Francisco:Harper & Row Publishers, 1981), p. 14.

72) 주선에, 교회교육에 있어서의 부모교육, 『교육교회』 (서울 : 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 교육원, 1983. 5.), p. 24.

73) Lewis J. Sherrill, The Gift power,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59), p. 82.

데후서 3장15절에서 말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은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장소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에 목적을 달성시키려고 불러 일으킨 집단체이며⁷⁴⁾ 부모의 교육적 사명의 막중함을 말해주고 있다.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가정은 기독교 교육의 진실된 학교가 된다.

자녀들은 부모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자녀를 인내와 수고로 정성을 다해 교육할 때 부모의 진실된 삶을 통해 자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되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녀가 됨을 깨닫게 된다. 자녀는 어려움속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영원히 변치않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배우게 된다. 또한 가정에서 선과 악을 배우고 인간관계에서 옳은 일과 그른 일이 어떤 것인가를 배운다.⁷⁵⁾

이상과 같이 자녀들의 신앙성장을 위해서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은 자녀들을 위하여 외부의 여러 가지 압력에서 보호하고 사회의 요구를 자녀에게 전하여 행동양식과 문화적 유산을 전달해야 하는 곳이다.

코메니우스와 페스탈로찌를 위시하여 많은 교육사상가들은 가정에서의 애정이 넘치는 보호와 분별있는 사회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의의있는 경험을 풍부하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모는 적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전문적이고도 조직적인 교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⁷⁶⁾

74) G.M Schreyer. Christian Education Theological Focus, 채위 역. 신학과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협회, 1979), p. 278.

75) Irios V. Cully. Children in the Church. 서광선 역. 어린이와 교회와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협회, 1984), pp. 89~92.

76) 방현덕. 「전계서」 p. 57.

무엇보다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부모가 되려면 부모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교육에 임하므로 “맹인이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여서는 안된다. 부모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자신은 늘 교육이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⁷⁷⁾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지식과 교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이루어 질 수 있다.

결국 부모는 가장 좋은 교사로서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 길을 앞서서 몸소 걸어가는 일이다.⁷⁸⁾ 부모들은 이러한 교육의 길을 오랫동안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자연적으로 그들이 부모의 삶을 모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자신의 하나님 앞의 바른 삶과 구원의 확신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삶이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 또한 닦아가며 성장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77) 김태원. 교회의 교육적 사명, (서울 : 종로서적 출판 주식회사, 1985), p. 81.

78) 오인택. 「전계서」 pp. 81~83.

Ⅲ. 先行研究考察

기독교 가정의 신앙교육(가정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논문이 정재민⁷⁹⁾ 「기독교 가정 교육에서의 어린이 교육 연구」는 어린이 성장발달의 이론적 기초로하여 교화가정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어린이교육의 실재를 연구하였으며 설문을 통한 실태를 조사하였지만 그 문항에 따른 해석을 하지 않고 문헌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 외의 선행 연구 논문들은 대부분 문헌 연구를 통한 가정교육의 연구로써 마은희⁸⁰⁾ 「유아를 위한 기독교 가정교육」, 김용호⁸¹⁾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의 가정교육」, 변영인⁸²⁾ 「가정사역의 필요성과 그 현황에 관한 연구」는 가정교육의 사회발달면에 중심을 두어 문헌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육의 필요성과 시대별 가정교육의 특성을 주로 한 연구를 하였다.

위의 논문들과 본 연구의 다른 점을 실태조사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실태조사 연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설문지로 직접 조사 했다는 점이다. 또한 각 문항별 결과 분석과 해석을 하였고 각 문항별 결과 분석과 해석을 하였고 포괄적 의미로 항목을 나누어 예배관심도, 가정환경 및 신앙생활, 신앙교육의 관심도로 나누어 자세한 분석을 한점이다.

79) 정제민. 기독교 가정교육에서의 어린이교육연구, (목원대학 신학대학원석사논문, 1988).

80) 마은희. 「전게서」.

81) 김용호.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의 가정교육, (장로회신학대학대학원석사논문, 1985).

82) 변영인. 가정사역의 필요성과 그 현황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그리고 설문지 작성에 있어서는 목원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88) 논문의 “기독교 가정교육에서의 어린이 교육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IV. 資料 分析의 結果 論議

1. 문항별 자료분석 결과

1) 예배에 대한 관심도

(표1) 부모의 교회출석 여부에 관하여 ()%

구 분		집회때마다	잘 나감	가끔 나감	일년에 몇번	계
성 별	남	44(17.60)	23(9.20)	6(2.40)	2(0.80)	75
	여	93(37.20)	75(30.30)	4(1.60)	3(1.20)	175
계		137	98	10	5	250
		$\chi^2=6.806$ df=3 P>0.05				
연 령	30세 이하	14(5.58)	7(2.79)	0(0.00)	0(0.00)	21
	31-40세	89(35.46)	68(27.09)	7(2.79)	3(1.20)	167
	41-50세	36(14.34)	23(9.16)	3(1.20)	1(0.40)	63
계		139	98	10	4	251
		$\chi^2=2.377$ df=6 P>0.05				
학 력	중 졸	16(6.37)	11(4.38)	1(0.40)	2(0.80)	30
	고 졸	40(15.94)	47(18.73)	5(1.99)	2(0.80)	94
	대 졸	66(26.29)	34(13.55)	3(1.20)	0(0.00)	103
	대학원졸	17(6.77)	6(2.39)	1(0.40)	0(0.00)	24
계		139	98	10	4	251
		$\chi^2=18.152$ df=9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55(21.83)	30(11.90)	4(1.59)	0(0.00)	89
	1 - 2 년	23(9.13)	25(9.92)	2(0.79)	1(0.40)	51
	3 - 4 년	28(11.11)	16(6.35)	0(0.00)	2(0.79)	46
	5 - 6 년	33(13.10)	27(10.71)	4(1.59)	2(0.79)	66
계		139	98	10	5	252
		$\chi^2=10.508$ df=9 P>0.05				
신 앙 년 수	1 - 5 년	5(1.97)	11(4.33)	4(1.57)	2(0.79)	22
	6 - 10년	18(7.09)	32(12.60)	3(1.18)	3(1.18)	56
	11 - 15년	20(7.87)	18(7.09)	2(0.79)	0(0.00)	40
	15년 이상	99(38.98)	36(14.17)	1(0.39)	0(0.00)	136
계		142	97	10	5	254
		$\chi^2=56.306$ df=9 P<0.001				

앞의 표1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학력과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18.152와 56.306으로 이들은 $P=0.05$ 와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6.919와 27.877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연령, 자녀학력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6.806, 2.377, 10.508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12.592,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출석여부의 차이점중은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교회 출석율이 좋으며 생활의 안정성에 들어가는 30~40세 사이의 연령과 비교적 고·대졸의 부모들이 교회에 잘 출석하며, 신앙년수는 높을수록 교회의 출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94%의 좋은 교회출석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모든 것이 풍부해진 현대는 과거 자기시간, 신앙생활 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던 시대와는 달리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2) 부모의 교회결석 이유에 관하여

()%

구 분		직장일	가정일	친척의애경사	그냥	계
성 별	남	26(13.54)	11(5.73)	23(11.98)	3(1.56)	63
	여	24(12.50)	41(21.35)	62(32.29)	2(1.04)	129
계		50	52	85	5	192
$\chi^2=14.509$ df=3 P<0.01						
연 령	30세이하	2(1.03)	2(1.03)	9(4.62)	2(1.03)	15
	31-40세	37(18.97)	38(19.49)	59(30.26)	2(1.03)	136
	41-50세	11(5.64)	11(5.64)	21(10.77)	1(0.51)	44
계		50	51	89	5	195
$\chi^2=10.459$ df=6 P>0.05						
학 력	중 졸	10(5.13)	5(2.56)	14(7.18)	2(1.03)	31
	고 졸	13(6.67)	22(11.28)	38(19.49)	2(1.03)	75
	대 졸	22(11.28)	24(12.31)	27(13.85)	1(0.51)	74
	대학원졸	5(2.56)	1(0.51)	9(4.62)	0(0.00)	15
계		50	52	88	5	195
$\chi^2=13.149$ df=9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19(9.79)	14(7.22)	29(14.95)	3(1.55)	65
	1 - 2 년	11(5.67)	13(6.70)	21(10.82)	0(0.00)	45
	3 - 4 년	5(2.58)	10(5.15)	14(7.22)	1(0.52)	30
	5 - 6 년	14(7.22)	13(6.70)	26(13.40)	1(0.52)	54
계		49	50	90	5	194
$\chi^2=5.117$ df=9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4(2.03)	9(4.57)	6(3.05)	2(1.02)	21
	6 - 10년	13(6.60)	20(10.15)	18(9.14)	1(0.51)	52
	11 -15년	11(5.58)	5(2.54)	16(8.12)	1(0.51)	33
	15년이상	23(11.68)	18(9.14)	49(24.87)	1(0.51)	91
계		51	52	89	5	197
$\chi^2=18.277$ df=9 P<0.05						

앞의 표2에서 나타내보이는 성별과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14.509, 18.277로 이들은 $P=0.01$ 과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1.345, 16.919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학력, 자녀학년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10.459, 13.149, 5.117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2.592, 16.919,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의 결석여부의 차이검증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자녀학년, 신앙연수와 관계없이 친척의 애경사 문제로 결석하는 예가 195명중 90명이 대답하였다. 아직도 유교·불교문화가 우리의 삶 깊숙히 자리잡고 있어서 친인척의 애경사로 인한(제사, 혼례) 결석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3) 자녀의 교회출석 여부에 관하여

()%

구 분		잘나감	가끔결석	가끔 나감	일년에 몇번	계
성 별	남	57(23.08)	14(5.67)	5(2.02)	0(0.00)	76
	여	126(51.01)	39(15.79)	5(2.02)	1(0.40)	171
계		183	53	10	1	247
		$\chi^2=2.665$		df=3	P>0.05	
연 령	30세 이하	16(6.46)	3(1.21)	0(0.00)	0(0.00)	19
	31-40세	121(48.79)	38(15.32)	5(2.02)	1(0.40)	165
	41-50세	48(19.35)	11(4.44)	5(2.02)	0(0.00)	64
계		185	52	10	1	248
		$\chi^2=5.234$		df=6	P>0.05	
학 력	중 졸	25(10.08)	5(2.02)	0(0.00)	0(0.00)	30
	고 졸	62(25.00)	25(10.08)	6(2.42)	1(0.40)	94
	대 졸	77(31.05)	20(8.06)	4(1.61)	0(0.00)	101
	대학원졸	20(8.06)	3(1.21)	0(0.00)	0(0.00)	23
계		184	53	10	1	248
		$\chi^2=9.198$		df=9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69(27.71)	15(6.02)	4(1.61)	0(0.00)	88
	1 - 2 년	30(12.05)	17(6.83)	2(0.80)	0(0.00)	49
	3 - 4 년	35(14.06)	8(3.21)	1(0.40)	1(0.40)	45
	5 - 6 년	51(20.48)	13(5.22)	3(1.20)	0(0.00)	67
계		185	53	10	1	249
		$\chi^2=11.676$		df=9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11(4.37)	7(2.78)	5(1.98)	0(0.00)	23
	6 - 10년	31(12.30)	21(8.33)	3(1.19)	1(0.40)	56
	11 -15년	27(10.71)	10(3.97)	1(0.40)	0(0.00)	38
	15년이상	120(47.62)	14(5.56)	1(0.40)	0(0.00)	135
계		189	52	10	1	252
		$\chi^2=50.765$		df=9	P<0.001	

앞의 표3에서 나타내보이는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50.765로 이들은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27.877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연령, 학력, 자녀학년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2.665, 5.234, 9.918, 11.676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12.592, 16.919,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회출석율보다 전체적으로 출석율이 95~96%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안정기에 접어든 30~40대와 15년 이상의 신앙년수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 교회의 출석율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부모교육열은 세계 어느나라 부모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부모가 하나를 먹지못해도 자녀는 하나라도 더 주려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의 교회출석여부에도 보여지고 있다.

(표4) 자녀의 교회결석 이유에 관하여

()%

구 분		공부	학교	집안일	놀러간다	계
성 별	남	10(5.65)	7(3.95)	28(15.82)	11(6.21)	56
	여	12(6.78)	28(15.82)	58(32.77)	23(12.99)	121
계		22	35	86	34	177
		$\chi^2=4.175$ df=3 P>0.05				
연 령	30세 이하	2(1.12)	1(0.56)	7(3.91)	4(2.23)	14
	31-40세	13(7.26)	21(11.73)	64(35.75)	20(11.17)	118
	41-50세	7(3.91)	15(8.83)	15(8.83)	10(5.59)	47
계		22	37	86	34	179
		$\chi^2=9.609$ df=6 P>0.05				
학 력	중 졸	4(2.23)	7(3.91)	12(6.70)	5(2.79)	28
	고 졸	5(2.79)	8(4.47)	40(22.35)	16(8.94)	69
	대 졸	8(4.47)	18(10.06)	29(16.20)	10(5.59)	65
	대학원졸	6(3.35)	3(1.68)	4(2.23)	4(2.23)	17
계		23	36	85	35	179
		$\chi^2=18.255$ df=9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8(4.44)	7(3.89)	26(14.44)	12(6.67)	53
	1 - 2 년	5(2.78)	8(4.44)	26(14.44)	4(2.22)	43
	3 - 4 년	2(1.11)	10(5.56)	14(7.78)	5(2.78)	31
	5 - 6 년	8(4.44)	12(6.67)	19(10.56)	14(7.78)	53
계		23	37	85	35	180
		$\chi^2=12.277$ df=9 P>0.05				
신 앙 년 수	1 - 5 년	1(0.55)	2(1.10)	14(7.78)	4(2.21)	21
	6 - 10년	2(1.10)	7(3.87)	28(15.47)	7(3.87)	44
	11 - 15년	5(2.76)	7(3.87)	11(6.08)	10(5.52)	33
	15년 이상	16(8.84)	22(12.15)	32(17.68)	13(7.18)	83
계		24	38	85	34	181
		$\chi^2=18.931$ df=9 P<0.05				

앞의 표4에서 나타내보이는 학력과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18.255, 18.931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6.919, 16.919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연령, 학력, 자녀학년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4.175, 18.255, 12.277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12.592,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검증은 어린이들 또한 집안일 때문에 결석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번째로 어린이들의 학교일(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활동 등등)로 인한 결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회활동(스카우트, 적십자 활동 등)을 많이 참석하여 대인관계와 사회성을 기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5) 자녀가 교회가기 싫어할 때의 부모 태도

()%

구 분		꾸중	타이름	아무말안함	무관심	계
성 별	남	20(8.89)	43(19.11)	7(3.11)	1(0.44)	71
	여	56(24.89)	94(41.78)	3(1.33)	1(0.44)	154
계		76	137	10	2	225
$\chi^2=8.126$ df=3 P<0.05						
연 령	30세 이하	6(2.65)	14(6.19)	0(0.00)	0(0.00)	20
	31-40세	48(21.24)	91(40.27)	7(3.10)	2(0.88)	148
	41-50세	23(10.18)	33(14.60)	2(0.88)	0(0.00)	58
계		77	138	9	2	226
$\chi^2=3.275$ df=6 P>0.05						
학 력	중 졸	11(4.85)	16(7.05)	2(0.88)	0(0.00)	29
	고 졸	29(12.78)	50(22.03)	5(2.20)	2(0.88)	86
	대 졸	28(12.33)	61(26.87)	2(0.88)	0(0.00)	91
	대학원졸	10(4.41)	11(4.85)	0(0.00)	0(0.00)	21
계		78	138	9	2	227
$\chi^2=8.810$ df=9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21(9.25)	51(22.47)	4(1.76)	0(0.00)	76
	1 - 2 년	12(5.29)	33(14.54)	1(0.44)	1(0.44)	47
	3 - 4 년	22(9.69)	18(7.93)	1(0.44)	1(0.44)	42
	5 - 6 년	24(10.57)	34(14.98)	4(1.76)	0(0.00)	62
계		79	136	10	2	227
$\chi^2=14.857$ df=9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3(1.31)	17(7.42)	3(1.31)	0(0.00)	23
	6 - 10년	12(5.24)	33(14.41)	3(1.31)	2(0.87)	50
	11 -15년	12(5.24)	20(8.73)	3(1.31)	0(0.00)	35
	15년이상	53(23.14)	67(29.26)	1(0.44)	0(0.00)	121
계		80	137	10	2	229
$\chi^2=25.439$ df=9 P<0.01						

앞의 표5에서 나타내보이는 성별과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8.126, 25.439로 이들은 $P=0.05$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21.666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학력, 자녀학년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3.275, 8.810, 14.857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2.592, 16.919,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 검증은 95% 부모가 꾸중또한 타일러서라도 교회출석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타일러서 보낸다는 부모가 전체중 138명의 부모들이 대답했으며, 부모의 출석과 관계없이 자녀들은 교회에 잘 출석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지든 그곳에서 일인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무관심 또는 아무말도 하지 않는 부모들이 전체적으로 5%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6) 가정예배에 관하여

()%

구 분		매일	일주일 2~3	특별한경우	안드린다	계
성 별	남	9(3.60)	13(5.20)	40(16.00)	15(6.00)	77
	여	21(8.40)	32(12.80)	78(31.20)	42(16.80)	173
계		30	45	118	57	250
$\chi^2=1.155$ df=3 P>0.05						
연 령	30세이하	4(1.59)	7(2.79)	9(3.59)	0(0.00)	20
	31-40세	19(7.57)	26(10.36)	79(31.47)	42(16.73)	166
	41-50세	7(2.79)	11(4.38)	33(13.15)	14(5.58)	65
계		30	44	121	56	251
$\chi^2=10.311$ df=6 P>0.05						
학 력	중 졸	0(0.00)	1(0.40)	23(9.16)	7(2.79)	31
	고 졸	7(2.79)	14(5.58)	44(17.53)	29(11.55)	94
	대 졸	14(5.58)	27(10.76)	46(18.33)	15(5.98)	102
	대학원졸	9(3.59)	3(1.20)	8(3.19)	4(1.59)	24
계		30	45	121	55	251
$\chi^2=39.282$ df=9 P<0.001						
자 녀 학 년	유 치 원	16(6.35)	17(6.75)	39(15.48)	16(6.35)	88
	1 - 2 년	6(2.38)	6(2.38)	24(9.52)	15(5.95)	51
	3 - 4 년	4(1.59)	11(4.37)	22(8.73)	8(3.17)	45
	5 - 6 년	4(1.59)	10(3.97)	37(14.68)	17(6.75)	68
계		30	44	122	56	252
$\chi^2=11.304$ df=9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1(0.39)	4(1.57)	6(2.36)	11(4.33)	22
	6 - 10년	3(1.18)	12(4.72)	26(10.24)	15(5.91)	56
	11 -15년	3(1.18)	9(3.54)	21(8.27)	7(2.76)	40
	15년이상	23(9.06)	20(7.87)	71(27.95)	22(8.66)	136
계		30	45	124	55	254
$\chi^2=21.870$ df=9 P<0.01						

앞의 표6에서 나타내보이는 학력과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39.282, 21.840으로 이들은 $P=0.01$,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27.877, 21.666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연령, 학력, 자녀학년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1.155, 10.311, 11.304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12.592,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 표를 검증하며 바쁜 현대를 살고있는 부모들은 볼 수가 있다. 신앙년수 15년이상 된 부모 136명중 9%인 23명만이 가정예배를 드리며, 대체로 특별한 경우에만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학력이 아주 낮거나 높을수록 더(예배생활을 잘할 것을 아나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30~40대와 고·대졸의 부모들이 더 예배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경변인과 관계없이 가정예배를 안드리는 가정도 대체로 전체 250명중 57명 정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현대 사회의 한 병폐로 개인적인 시간이 늘어가고 한편 한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줄어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2) 가정환경 및 신앙생활상태

(표7) 기도내용에 관하여

()%

구 분		믿음	자녀	가정	물질	계
성 별	남	48(19.12)	11(4.38)	15(5.98)	3(1.20)	77
	여	136(54.18)	17(6.77)	20(7.97)	1(0.40)	174
계		184	28	35	4	251
$\chi^2=8.938$ df=3 P<0.05						
연 령	30세이하	17(6.75)	0(0.00)	4(1.59)	0(0.00)	21
	31-40세	118(46.83)	18(7.14)	26(10.32)	4(1.59)	166
	41-50세	50(19.84)	8(3.17)	7(2.78)	0(0.00)	65
계		185	26	37	4	252
$\chi^2=5.986$ df=6 P>0.05						
학 력	중 졸	21(8.33)	2(0.79)	8(3.17)	0(0.00)	31
	고 졸	69(27.38)	10(3.97)	11(4.37)	4(1.59)	94
	대 졸	73(28.97)	14(5.56)	16(6.35)	0(0.00)	103
	대학원졸	21(8.33)	1(0.40)	2(0.79)	0(0.00)	24
계		184	27	37	4	252
$\chi^2=13.772$ df=9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66(26.09)	9(3.56)	13(5.14)	1(0.40)	89
	1 - 2 년	35(13.83)	4(1.58)	10(3.95)	1(0.40)	50
	3 - 4 년	38(15.02)	3(1.19)	4(1.58)	1(0.40)	46
	5 - 6 년	46(18.18)	11(4.35)	10(3.95)	1(0.40)	68
계		185	27	37	4	253
$\chi^2=6.333$ df=9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10(3.92)	3(1.18)	8(3.14)	1(0.39)	22
	6 - 10년	35(13.73)	9(3.53)	11(4.31)	1(0.39)	56
	11 -15년	25(9.80)	4(1.57)	10(3.92)	1(0.39)	40
	15년이상	116(45.49)	12(4.71)	8(3.14)	1(0.39)	137
계		186	28	37	4	255
$\chi^2=28.897$ df=9 P<0.001						

앞의 표7에서 나타내보이는 성별과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8.935, 28.897로 이들은 $P=0.05$,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27.877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학력, 자녀학년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5.986, 13.773, 6.333으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2.592, 16.919,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표의 검증 결과는 대체로 믿음의 가정이 되기로 소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복신앙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들 하나 젊은 부모와 15년 이상의 신앙년수를 갖고있는 부모들은 초신자적인 기복신앙을 떠나 믿음의 가정인 즉,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가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축복을 받기 원하는 부모는 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은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표8) 기도응답에 관하여

()%

구 분		언제나	가끔	전혀안들어 준다	언제가는 들어주신다	계
성 별	남	42(16.94)	11(4.44)	2(0.81)	22(8.87)	77
	여	107(43.15)	21(8.47)	0(0.00)	43(17.34)	171
계		149	32	2	65	248
		$\chi^2=5.414$		df=3	P>0.05	
연 령	30세 이하	15(6.02)	1(0.40)	0(0.00)	5(2.01)	21
	31-40세	103(41.37)	24(9.64)	0(0.00)	37(14.86)	164
	41-50세	33(13.25)	8(3.21)	2(0.80)	21(8.43)	64
계		151	33	2	63	249
		$\chi^2=10.519$		df=6	P>0.05	
학 력	중 졸	10(4.02)	14(5.62)	0(0.00)	7(2.81)	31
	고 졸	51(20.48)	7(2.81)	0(0.00)	36(14.46)	94
	대 졸	67(26.91)	11(4.42)	2(0.80)	20(8.03)	100
	대학원졸	22(8.84)	2(0.80)	0(0.00)	0(0.00)	24
계		150	34	2	63	249
		$\chi^2=52.014$		df=9	P<0.001	
자 녀 학 년	유 치 원	65(25.90)	5(1.99)	0(0.00)	18(7.17)	88
	1 - 2 년	28(11.16)	8(3.19)	0(0.00)	14(5.58)	50
	3 - 4 년	28(11.16)	7(2.79)	0(0.00)	10(3.98)	45
	5 - 6 년	31(12.35)	13(5.18)	2(0.80)	22(8.76)	68
계		152	33	2	64	251
		$\chi^2=19.189$		df=9	P<0.05	
신 앙 년 수	1 - 5 년	7(2.78)	1(0.40)	0(0.00)	14(5.56)	22
	6 - 10년	26(10.32)	15(5.95)	1(0.40)	14(5.56)	56
	11 - 15년	23(9.13)	7(2.78)	1(0.40)	9(3.57)	40
	15년 이상	96(38.10)	11(4.37)	0(0.00)	27(10.71)	134
계		152	34	2	64	252
		$\chi^2=37.199$		df=9	P<0.001	

앞의 표8에서 나타내 보이는 학교와 자녀학년,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52.014, 19.189, 37.199로 이들은 $P=0.001$,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27.877, 16.919, 27.877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연령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5.414, 10.519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9, 12.592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꼭 들어 준다는 응답을 전체 252명중 152명이 대답하였다. 이 질문 역시 신앙년수가 높은 부모의 수가 96명으로 학력은 대졸인 부모인 67명 연령은 안정기에 들어서는 30~40대의 부모들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이 없다는 대답도 2명으로 0.80%로 나타났다.

기도의 응답은 신앙인들이 평생 하나님과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른 기도를 드리므로 훈련되지 못한 부모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표9) 성경읽는 습관에 관하여

()%

구 분		규칙적	가끔	가정에서 읽지않는다	직장에서 틈틈이	계
성 별	남 여	25(10.08)	37(14.92)	11(4.44)	3(1.21)	76
		73(29.44)	88(35.48)	4(1.61)	7(2.82)	172
계		98	125	15	10	248
$\chi^2=14.143$ df=3 P<0.05						
연 령	30세 이하	13(5.24)	7(2.82)	0(0.00)	1(0.40)	21
	31-40세	61(24.60)	89(35.89)	9(3.63)	5(2.02)	164
	41-50세	23(9.27)	31(12.50)	5(2.02)	4(1.67)	63
계		97	127	14	10	248
$\chi^2=7.750$ df=6 P>0.05						
학 력	중 졸	3(1.21)	26(10.48)	1(0.40)	0(0.00)	30
	고 졸	33(13.31)	50(20.16)	7(2.82)	3(1.21)	93
	대 졸	46(18.55)	44(17.74)	6(2.42)	7(2.82)	103
	대학원졸	16(6.45)	6(2.42)	0(0.00)	0(0.00)	22
계		98	126	14	10	248
$\chi^2=31.618$ df=9 P<0.001						
자 녀 학 년	유 치 원	41(16.47)	42(16.87)	5(2.01)	1(0.40)	89
	1 - 2 년	16(6.43)	28(11.24)	2(0.80)	2(0.80)	48
	3 - 4 년	22(8.84)	20(8.03)	2(0.80)	2(0.80)	46
	5 - 6 년	20(8.03)	36(14.46)	6(2.41)	4(1.61)	66
계		99	126	15	9	249
$\chi^2=9.336$ df=9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5(1.98)	10(3.95)	6(2.37)	1(0.40)	22
	6 - 10년	15(5.93)	36(14.23)	4(1.58)	1(0.40)	56
	11 -15년	15(5.93)	20(7.91)	3(1.19)	1(0.40)	39
	15년 이상	64(25.30)	63(24.90)	2(0.79)	7(2.77)	136
계		99	129	15	10	253
$\chi^2=31.711$ df=9 P<0.001						

앞의 표9에서 나타내 보이는 성별, 학력,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14.143, 31.618, 31.711로 이들은 $P=0.05$,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27.877, 27.877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자녀학년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7.750, 9.336으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2.592,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위 검증은 대체로 전체 253중 228명의 부모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부모중 15명 인 6%의 부모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인 대졸의 학력과 신앙년수가 높은 부모들인 30~40대 부모가 대체로 성경을 잘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읽기를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나쁜 습성을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으로 인해 성경읽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성경읽을 때 성경지식에 관하여

()%

구 분		모르는 것이 많	모르는 것이 가끔 있다.	모르는 것이 전혀 없다.	무작정 읽는다	계
성 별	남	32(12.96)	43(17.41)	0(0.00)	1(0.40)	76
	여	71(28.74)	95(38.46)	0(0.00)	5(2.02)	171
계		103	138	0	6	247
$\chi^2=0.574$ df=2 P>0.05						
연 령	30세 이하	8(3.23)	12(4.84)	0(0.00)	1(0.40)	21
	31-40세	71(28.63)	87(35.08)	0(0.00)	4(1.61)	162
	41-50세	25(10.08)	39(15.73)	0(0.00)	1(0.40)	65
계		104	138	0	6	248
$\chi^2=1.425$ df=4 P>0.05						
학 력	중 졸	15(6.05)	15(6.05)	0(0.00)	1(0.40)	31
	고 졸	47(18.95)	44(17.74)	0(0.00)	1(0.40)	92
	대 졸	32(12.90)	65(26.21)	0(0.00)	4(1.61)	101
	대학원졸	8(3.23)	16(6.45)	0(0.00)	0(0.00)	24
계		102	140	0	6	248
$\chi^2=10.625$ df=6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33(13.25)	50(20.08)	0(0.00)	5(2.01)	88
	1 - 2 년	23(9.24)	26(10.44)	0(0.00)	0(0.00)	49
	3 - 4 년	14(5.62)	31(12.45)	0(0.00)	0(0.00)	45
	5 - 6 년	34(13.65)	32(12.85)	0(0.00)	1(0.40)	67
계		104	139	0	6	249
$\chi^2=11.862$ df=6 P<0.05						
신 앙 년 수	1 - 5 년	15(5.95)	7(2.78)	0(0.00)	0(0.00)	22
	6 - 10년	32(12.70)	23(9.13)	0(0.00)	1(0.40)	56
	11 - 15년	19(7.54)	19(7.54)	0(0.00)	1(0.40)	39
	15년 이상	41(16.27)	90(35.71)	0(0.00)	4(1.59)	135
계		107	139	0	6	
$\chi^2=19.805$ df=6 P<0.01						

앞의 표10에서 나타내 보이는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19.805로 이들은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6.812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연령, 학력, 자녀학년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0.574, 1.425, 10.625, 11.862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5.991, 9.488, 12.592, 12.592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대체로 전체 25명중 139명인(55%) 부모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을 잘 모르고 읽는 부모도 107명으로 42% 해당하고, 성경을 책 읽듯이 무작정 읽는 부모도 6명인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읽기는 신앙생활의 필수이므로 그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는 것은 좀 어렵다. 꾸준히 성경을 읽어갈 때 그 안의 내용도 잘 이해가 되며 파악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11) 찬송생활에 관하여

()%

구 분		언제나	가끔	대체로 부르 지 않는다	전 히 안 부른다	계
성 별	남	23(9.31)	45(18.22)	8(3.24)	1(0.40)	77
	여	71(28.74)	92(37.25)	6(2.43)	1(0.40)	170
계		94	137	14	2	247
		$\chi^2=6.880$ df=3 P>0.05				
연 령	30세 이하	13(5.24)	8(3.23)	0(0.00)	0(0.00)	21
	31-40세	61(24.60)	93(37.50)	8(3.23)	2(0.81)	164
	41-50세	21(8.47)	38(15.32)	4(1.61)	0(0.00)	63
계		95	139	12	2	248
		$\chi^2=7.276$ df=6 P>0.05				
학 력	중 졸	7(2.82)	23(9.27)	1(0.40)	0(0.00)	31
	고 졸	35(14.11)	53(21.37)	4(1.61)	1(0.40)	93
	대 졸	41(16.53)	52(20.97)	8(3.23)	1(0.40)	102
	대학원졸	13(5.24)	9(3.63)	0(0.00)	0(0.00)	22
계		96	137	13	2	248
		$\chi^2=11.167$ df=9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39(15.66)	43(17.27)	5(2.01)	2(0.80)	89
	1 - 2 년	15(6.02)	33(13.25)	1(0.40)	0(0.00)	49
	3 - 4 년	20(8.03)	22(8.84)	3(1.20)	0(0.00)	45
	5 - 6 년	20(8.03)	41(16.47)	5(2.01)	0(0.00)	66
계		94	139	14	2	249
		$\chi^2=11.203$ df=9 P>0.05				
신 앙 년 수	1 - 5 년	2(0.79)	14(5.56)	4(1.59)	2(0.79)	22
	6 - 10년	14(5.56)	36(14.29)	6(2.38)	0(0.00)	56
	11 - 15년	18(7.14)	20(7.94)	2(0.79)	0(0.00)	40
	15년 이상	62(24.60)	70(27.78)	2(0.79)	0(0.00)	134
계		96	140	14	2	252
		$\chi^2=45.653$ df=9 P<0.001				

앞의 표11에서 나타내 보이는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45.653으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27.877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연령, 학력, 자녀학년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6.880, 7.276, 11.167, 11.203으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12.592, 16.919,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기독교 가정의 찬송생활은 전체 252명중 94%에 해당하는 부모가 부르고 있으며 언제나 부른다고 대답한 부모는 96명으로 38%에 해당하며 가끔 부르는 부모는 140명으로 56%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부르지 않는 부모도 14명으로 5%나 되며 전혀 부르지 않는 가정도 2가정으로 1%에 해당한다. 비교적, 기독교 가정의 찬송생활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송은 그 사람의 영적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한 도구이다. 그것은 본인의 영이 맑고 하나님께 향할수록 그 입의 찬송이 멈추지 않고, 영적으로 침체될수록 그 입의 찬송이 줄어들고 원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볼 때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본인의 영적인 부분을 잘 체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12) 자녀와의 대화에 관하여

()%

구 분		많이한다	가끔한다	대체로없다	전혀없다	계
성 별	남	42(16.94)	24(9.68)	9(3.63)	1(0.40)	76
	여	128(51.61)	40(16.13)	3(1.21)	1(0.40)	172
계		170	64	12	2	248
$\chi^2=15.697$ df=3 P<0.001						
연 령	30세 이하	15(6.02)	5(2.01)	0(0.00)	0(0.00)	20
	31-40세	118(47.39)	36(14.46)	8(3.21)	2(0.80)	164
	41-50세	38(15.26)	24(9.64)	3(1.20)	0(0.00)	65
계		171	65	11	2	249
$\chi^2=7.372$ df=6 P>0.05						
학 력	중 졸	13(5.22)	13(5.22)	3(1.20)	1(0.40)	30
	고 졸	65(26.10)	22(8.84)	5(2.01)	0(0.00)	92
	대 졸	73(29.32)	27(10.84)	2(0.80)	1(0.40)	103
	대학원졸	20(8.03)	3(1.20)	1(0.40)	0(0.00)	24
계		171	65	11	2	249
$\chi^2=16.087$ df=9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62(24.80)	22(8.80)	3(1.20)	1(0.40)	88
	1 - 2 년	36(14.40)	12(4.80)	2(0.80)	0(0.00)	50
	3 - 4 년	34(13.60)	10(4.00)	1(0.40)	1(0.40)	46
	5 - 6 년	38(15.20)	22(8.80)	6(2.40)	0(0.00)	66
계		170	66	12	2	250
$\chi^2=8.993$ df=9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11(4.37)	7(2.78)	3(1.19)	1(0.40)	22
	6 - 10년	28(11.11)	22(8.73)	4(1.59)	1(0.40)	55
	11 -15년	28(11.11)	9(3.57)	3(1.19)	0(0.00)	40
	15년이상	103(40.87)	30(11.90)	2(0.79)	0(0.00)	135
계		170	68	12	2	252
$\chi^2=23.970$ df=9 P<0.01						

앞의 표12에서 나타내 보이는 성별,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15.697, 23.970으로 이는 $P=0.001$,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6.268, 21.666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학력, 자녀학년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7.372, 16.087, 8.993으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2.592, 16.919,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들과의 대화에 관한 질문에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대체로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52명의 부모인 94%에 해당하는 부모들이 대화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거나 아주 없는 부모도 6%에 해당하는 14명의 부모가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바쁘다는 현대사회에서 기독교 가정은 자녀와의 대화가 보편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 교육에만 치중하는 교육보다는 다시 가정교육의 필요성과 부모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13) 자녀와의 관계중 실망에 관하여

()%

구 분		많이있다	가끔있다.	거의없다	아주없다	계
성 별	남	5(2.02)	66(26.72)	5(2.02)	0(0.00)	76
	여	38(15.38)	120(48.58)	13(5.26)	0(0.00)	171
계		43	186	18	0	247
$\chi^2=9.412$ df=2 P<0.01						
연 령	30세이하	4(1.61)	13(5.24)	3(1.21)	0(0.00)	20
	31-40세	30(12.10)	123(49.60)	10(4.03)	0(0.00)	163
	41-50세	10(4.03)	50(20.16)	5(2.02)	0(0.00)	65
계		44	186	18	0	248
$\chi^2=2.557$ df=4 P>0.05						
학 력	중 졸	5(2.02)	24(9.68)	1(0.40)	0(0.00)	30
	고 졸	20(8.06)	63(25.40)	10(4.03)	0(0.00)	93
	대 졸	13(5.24)	82(33.06)	6(2.42)	0(0.00)	101
	대학원졸	6(2.42)	17(6.85)	1(0.40)	0(0.00)	24
계		44	186	18	0	248
$\chi^2=6.909$ df=6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12(4.82)	72(28.92)	3(1.20)	0(0.00)	87
	1 - 2 년	12(4.82)	35(14.06)	3(1.20)	0(0.00)	50
	3 - 4 년	6(2.41)	32(12.85)	7(2.81)	0(0.00)	45
	5 - 6 년	13(5.22)	49(19.68)	5(2.01)	0(0.00)	67
계		43	188	18	0	249
$\chi^2=9.618$ df=6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5(1.99)	15(5.98)	2(0.80)	0(0.00)	22
	6 - 10년	7(2.79)	47(18.73)	2(0.80)	0(0.00)	56
	11 -15년	9(3.59)	30(11.95)	1(0.40)	0(0.00)	40
	15년이상	22(8.76)	98(39.04)	13(5.18)	0(0.00)	133
계		43	190	18	0	251
$\chi^2=6.141$ df=6 P>0.05						

앞의 표13에서 나타내 보이는 성별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9.412로 이는 $P=0.01$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9.210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학력, 자녀학력,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2.557, 6.909, 9.618, 6.141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9.488, 12.592, 12.592, 12.592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검증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실망을 준적이 있다고 대답한 부모가 전체 251명 중 93%에 해당하며 거의 없다고 대답한 부모도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앞의 질문에서와 같이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14) 실망시킨 이유에 관하여

()%

구 분		성경말씀에 어긋난 행동	사랑으로 양육치 않음	무관심	성경을 이해 하지 못해서	계
성 별	남	10(4.29)	47(20.17)	14(6.01)	2(0.86)	73
	여	45(19.31)	105(45.06)	7(3.00)	3(1.29)	160
계		55	152	21	5	233
$\chi^2=16.794$ df=3 P<0.001						
연 령	30세이하	4(1.70)	13(5.53)	1(0.43)	0(0.00)	18
	31-40세	31(13.19)	106(45.11)	14(5.96)	2(0.85)	153
	41-50세	20(8.51)	37(15.74)	5(2.13)	2(0.85)	64
계		55	156	20	4	235
$\chi^2=4.837$ df=6 P>0.05						
학 력	중 졸	6(2.55)	20(8.51)	1(0.43)	1(0.43)	28
	고 졸	19(8.09)	60(25.53)	6(2.55)	2(0.85)	87
	대 졸	26(11.06)	59(25.11)	10(4.26)	2(0.85)	97
	대학원졸	3(1.28)	16(6.81)	4(1.70)	0(0.00)	23
계		54	155	21	5	235
$\chi^2=6.493$ df=9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17(7.23)	53(22.55)	9(3.83)	2(0.85)	81
	1 - 2 년	9(3.83)	37(15.74)	2(0.85)	1(0.43)	49
	3 - 4 년	9(3.83)	25(10.64)	5(2.13)	0(0.00)	39
	5 - 6 년	19(8.09)	41(17.45)	4(1.70)	2(0.85)	66
계		54	156	20	5	235
$\chi^2=6.618$ df=9 P>0.05						
신 앙 년 수	1 - 5 년	3(1.27)	15(6.33)	2(0.84)	0(0.00)	20
	6 - 10년	12(5.06)	35(14.77)	3(1.27)	3(1.27)	53
	11 - 15년	9(3.80)	27(11.39)	4(1.69)	0(0.00)	40
	15년이상	30(12.66)	80(33.76)	12(5.06)	2(0.84)	124
계		54	157	21	5	237
$\chi^2=6.311$ df=9 P>0.05						

앞의 표14에서 나타내 보이는 성별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16.794로 이는 $P=0.001$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6.268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학력, 자녀학년,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4.837, 6.493, 6.618, 6.311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2.592, 16.919, 16.919,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자녀들에게 실망을 준 이유에 대한 대답으로는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응답이 전체 237명의 부모중 66%에 해당하는 157명의 부모가 대답했으며 무관심때문이라고 대답한 부모도 9%에 해당하는 21명의 부모가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하여 사랑하는 방법과 또한 표현방법들의 미숙함으로 인해 새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꺼려하기도하며 때론 자녀들이 원할 때 옆에 있어 주는 것 보다는 개인적인 욕구(사회적)를 채우느라 그 기회를 상실하는 예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15) 부부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

구 분		함께나간다	가끔함께	함께 나가지않는다	전혀함께 나가지않는다	계
성 별	남	64(25.81)	8(3.23)	3(1.21)	2(0.81)	77
	여	123(49.60)	23(9.27)	17(6.85)	8(3.23)	171
계		187	31	20	10	248
		$\chi^2=4.255$ df=3 P>0.05				
연 령	30세이하	19(7.63)	2(0.80)	0(0.00)	0(0.00)	21
	31-40세	121(48.59)	21(8.43)	12(4.82)	10(4.02)	164
	41-50세	49(19.68)	7(2.81)	7(2.81)	1(0.40)	64
계		189	30	19	11	249
		$\chi^2=6.640$ df=6 P>0.05				
학 력	중 졸	15(6.02)	4(1.61)	9(3.61)	3(1.20)	31
	고 졸	58(23.29)	21(8.43)	6(2.41)	7(2.81)	92
	대 졸	92(36.95)	4(1.61)	85(2.01)	1(0.40)	102
	대학원졸	23(9.24)	1(0.40)	0(0.00)	0(0.00)	24
계		188	30	20	11	249
		$\chi^2=24.961$ df=9 P<0.01				
자 녀 학 년	유 치 원	78(31.08)	7(2.79)	3(1.20)	0(0.00)	88
	1 - 2 년	32(12.75)	7(2.79)	4(1.59)	7(2.79)	50
	3 - 4 년	34(13.55)	6(2.39)	5(1.99)	1(0.40)	46
	5 - 6 년	45(17.93)	11(4.38)	8(3.19)	3(1.20)	67
계		189	31	20	11	251
		$\chi^2=24.961$ df=9 P<0.01				
신 앙 년 수	1 - 5 년	8(3.17)	7(2.78)	3(1.19)	3(1.19)	21
	6 - 10년	35(13.89)	10(3.97)	10(3.97)	1(0.40)	56
	11 - 15년	30(11.90)	3(1.19)	3(1.19)	4(1.59)	40
	15년이상	118(46.83)	11(4.37)	4(1.59)	2(0.79)	135
계		191	31	20	10	252
		$\chi^2=43.553$ df=9 P<0.001				

앞의 표15에서 나타내 보이는 학교, 자녀학년, 신앙년수의 경우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53.162, 24.961, 43.553로 이는 $P=0.001$,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27.877, 21.666, 27.877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연령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4.255, 6.640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12.592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검증에서는 부부가 함께 교회를 다니는 부모가 전체응답자 252명 중 88%에 해당하는 부모가 함께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회에 함께 다니지 않는 부모도 12%에 해당하는 30명의 부모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줄어들어 주일을 이용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려는 젊은 부부들의 행동으로 보여진다.

또한 삶의 풍요로움에서 오는 또 하나의 여가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부모들은 있을 것으로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3) 신앙교육(가정교육)의 관심도

(표16) 어린이 신앙교육에 관하여

()%

구 분		잘시킨다	가끔시킨다	잘못시킨다	전혀못시킨다	계
성 별	남	41(16.87)	18(7.41)	13(5.35)	2(0.82)	74
	여	79(32.51)	65(26.75)	24(9.88)	1(0.41)	169
계		120	83	37	3	243
$\chi^2=6.034$ df=3 P>0.05						
연 령	30세 이하	12(4.92)	7(2.87)	1(0.41)	0(0.00)	20
	31-40세	76(31.15)	57(23.36)	26(10.66)	2(0.82)	161
	41-50세	29(11.89)	23(9.43)	10(4.10)	1(0.41)	63
계		117	87	37	3	244
$\chi^2=2.489$ df=6 P>0.05						
학 력	중 졸	5(2.05)	13(5.33)	9(3.69)	1(0.41)	28
	고 졸	36(14.75)	39(15.98)	16(6.56)	1(0.41)	92
	대 졸	63(25.82)	27(11.07)	9(3.69)	1(0.41)	100
	대학원졸	15(6.15)	6(2.46)	3(1.23)	0(0.00)	24
계		119	85	37	3	244
$\chi^2=27.180$ df=9 P<0.001						
자 녀 학 년	유 치 원	51(20.82)	27(11.02)	6(2.45)	2(0.82)	86
	1 - 2 년	16(6.53)	20(8.16)	12(4.90)	0(0.00)	48
	3 - 4 년	27(11.02)	9(3.67)	8(3.27)	0(0.00)	44
	5 - 6 년	25(10.20)	29(11.84)	12(4.90)	1(0.41)	67
계		119	85	38	3	245
$\chi^2=21.796$ df=9 P<0.01						
신 앙 년 수	1 -5 년	5(2.02)	8(3.24)	6(2.43)	2(0.81)	21
	6 - 10년	18(7.29)	25(10.12)	10(4.05)	1(0.40)	54
	11 -15년	16(6.48)	14(5.67)	10(4.05)	0(0.00)	40
	15년 이상	81(32.79)	39(15.79)	12(4.86)	0(0.00)	132
계		120	86	38	3	247
$\chi^2=36.173$ df=9 P<0.001						

앞의 표16에서 나타내 보이는 학교, 자녀학년,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27.180, 21.796, 36.173으로 이는 $P=0.001$,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27.877, 21.666, 27.877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연령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6.034, 2.489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518, 12.592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질문은 전체 247명의 부모중 49%인 120명의 부모가 잘 시키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전혀시키지 못하는 부모도 1%에 해당하는 3명의 부모가 대답했으며 대체로 시키지 못하는 부모도 15%인 38명의 부모들이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은 갖고있지만시간과세상적욕구에다하기위해세상교육에신앙교육이 밀려나고있는것은, 부모들의생각과실천이일치하지못하기때문이다.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학문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17) 가정에서 기독교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이유 ()%

구 분		시간이없다	교육내용모름	교육방법모름	관심이없다	계
성 별	남	28(13.15)	15(7.04)	18(8.45)	3(1.41)	64
	여	63(29.58)	31(14.55)	52(24.41)	3(1.41)	149
계		91	46	70	6	213
$\chi^2=1.928$ df=3 P>0.05						
연 령	30세 이하	9(4.17)	4(1.85)	6(2.78)	0(0.00)	19
	31-40세	61(28.24)	34(15.74)	44(20.37)	4(1.85)	143
	41-50세	22(10.19)	9(4.17)	21(9.72)	2(0.93)	54
계		92	47	71	6	216
$\chi^2=2.552$ df=6 P>0.05						
학 력	중 졸	10(4.65)	6(2.79)	10(4.65)	1(0.47)	27
	고 졸	29(13.49)	21(9.77)	28(13.02)	1(0.47)	79
	대 졸	44(20.47)	15(6.98)	29(13.49)	2(0.93)	90
	대학원졸	9(4.19)	5(2.33)	3(1.40)	2(0.93)	19
계		92	47	70	6	215
$\chi^2=10.789$ df=9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31(14.42)	15(6.98)	26(12.09)	3(1.40)	75
	1 - 2 년	16(7.44)	13(6.05)	14(6.51)	2(0.93)	45
	3 - 4 년	21(9.77)	5(2.33)	8(3.72)	0(0.00)	34
	5 - 6 년	26(12.09)	12(5.58)	23(10.70)	0(0.00)	61
계		94	45	71	5	215
$\chi^2=10.827$ df=9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10(4.57)	5(2.28)	4(1.83)	1(0.46)	20
	6 - 10년	16(7.31)	19(8.68)	15(6.85)	0(0.00)	50
	11 -15년	17(7.76)	4(1.83)	16(7.31)	1(0.46)	38
	15년이상	51(23.29)	19(8.68)	37(16.89)	4(1.83)	111
계		94	47	72	6	219
$\chi^2=15.644$ df=9 P>0.05						

앞의 표17에서 나타내 보이는 성별, 연령, 학력, 자녀학년, 신앙년수의 경우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1.928, 2.552, 10.789, 10.827, 15.644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12.592, 16.919, 16.919,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독교 교육을 행하기에 어려운 문제에 대한 질문에 시간이 없다라고 대답한 부모가 전체 219명중 43%에 해당하는 94명의 부모가 대답했고 교육내용을 모르는 부모도 21%인 47명과 교육방법을 알지 못하는 부모도 33%인 72명으로 또한 관심이 없다 라고 대답한 부모도 3%인 6명의 부모들이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이 줄고, 부모 개인의 개인적 시간 신앙교육을 위해 전문서적을 읽을 시간이 줄어들어 이로 인한 신앙 교육내용을 모르므로 또한, 읽어도 내용파악이 어려워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님들이 자녀 신앙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서적을 대하므로 그들의 신앙을 체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18) 교회학교 교육관심에 관하여

()%

구 분		매우관심	보통	관심없다	전혀없다	계
성 별	남	40(16.13)	31(12.50)	5(2.02)	0(0.00)	76
	여	104(41.94)	60(24.19)	7(2.82)	1(0.40)	172
계		144	91	12	1	248
$\chi^2=2.186$ df=3 P>0.05						
연 령	30세 이하	15(6.02)	6(2.41)	0(0.00)	0(0.00)	21
	31-40세	95(38.15)	60(24.10)	7(2.81)	1(0.40)	163
	41-50세	32(12.85)	28(11.24)	5(2.01)	0(0.00)	65
계		142	94	12	1	249
$\chi^2=5.243$ df=6 P>0.05						
학 력	중 졸	8(3.21)	20(8.03)	2(0.80)	0(0.00)	30
	고 졸	47(18.88)	37(14.86)	7(2.81)	1(0.40)	92
	대 졸	67(26.91)	33(13.25)	3(1.20)	0(0.00)	103
	대학원졸	21(8.43)	3(1.20)	0(0.00)	0(0.00)	24
계		143	93	12	1	249
$\chi^2=27.598$ df=9 P<0.001						
자 녀 학 년	유 치 원	59(23.60)	25(10.00)	3(1.20)	1(0.40)	88
	1 - 2 년	25(10.00)	23(9.20)	1(0.40)	0(0.00)	49
	3 - 4 년	28(11.20)	16(6.40)	2(0.80)	0(0.00)	46
	5 - 6 년	31(12.40)	30(12.00)	6(2.40)	0(0.00)	67
계		143	94	12	1	250
$\chi^2=12.857$ df=9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6(2.39)	12(4.76)	3(1.19)	0(0.00)	21
	6 - 10년	21(8.33)	29(11.51)	4(1.59)	1(0.40)	55
	11 -15년	20(7.94)	18(7.14)	2(0.79)	0(0.00)	40
	15년 이상	97(38.49)	36(14.29)	3(1.19)	0(0.00)	136
계		144	95	12	1	252
$\chi^2=32.299$ df=9 P<0.001						

앞의 표18에서 나타내 보이는 학력, 신앙년구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27.598, 32.299로 이들은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27.877, 27.877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연령, 자녀학년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2.186, 5.243, 12.857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9, 12.592,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교회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94%인 239명인 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한 부모도 5%에 해당하는 13명의 부모가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자녀의 교육의 관심은 기독교 신앙교육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19) 교회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에 관하여

()%

구 분		자주있다.	가끔있다.	대 체 로 참여않함	전혀없다	계
성 별	남	30(12.30)	19(7.79)	15(6.15)	11(4.51)	75
	여	65(26.64)	60(24.59)	22(9.02)	22(9.02)	169
계		95	79	37	33	244
		$\chi^2=3.465$		df=3	P>0.05	
연 령	30세 이하	9(3.67)	10(4.08)	0(0.00)	1(0.41)	20
	31-40세	62(25.31)	50(20.41)	26(10.61)	23(9.39)	161
	41-50세	22(8.98)	23(9.39)	10(4.08)	9(3.67)	64
계		93	83	36	33	245
		$\chi^2=6.854$		df=6	P>0.05	
학 력	중 졸	4(1.63)	14(5.71)	7(2.86)	4(1.63)	29
	고 졸	27(11.02)	32(13.06)	14(5.71)	18(7.35)	91
	대 졸	48(19.59)	31(12.65)	14(5.71)	8(3.27)	101
	대학원졸	15(6.12)	5(2.04)	2(0.82)	2(0.82)	24
계		94	82	37	32	245
		$\chi^2=23.579$		df=9	P<0.01	
자 녀 학 년	유 치 원	39(15.85)	31(12.60)	9(3.66)	8(3.25)	87
	1 - 2 년	20(8.13)	14(5.69)	7(2.85)	8(3.25)	49
	3 - 4 년	13(5.28)	15(6.10)	8(3.25)	7(2.85)	43
	5 - 6 년	22(8.94)	22(8.94)	13(5.28)	10(4.07)	67
계		94	82	37	33	246
		$\chi^2=7.160$		df=9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4(1.61)	5(2.02)	6(2.42)	6(2.42)	21
	6 - 10년	10(4.03)	24(9.68)	7(2.82)	13(5.24)	54
	11 -15년	12(4.84)	16(6.45)	10(4.03)	2(0.81)	40
	15년 이상	69(27.82)	39(15.73)	14(5.65)	11(4.44)	133
계		95	84	37	32	248
		$\chi^2=38.909$		df=9	P<0.001	

앞의 표19에서 나타내 보이는 학력,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23.579, 38.909로 이들은 $P=0.01$,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21.666, 27.877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연령, 자녀학년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3.465, 6.854, 7.160으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12.592,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회학교 교육 및 활동 참여여부에 관한 질문에 참여한 적이 있는 부모는 전체 248명 중 72%에 해당하는 179명의 부모들이 대답했으며 대체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전혀 참여하지 않는 부모도 28%에 해당하는 69명의 부모들이 응답했다.

(표20) 교회학교 확인학습에 관하여

()%

구 분		꼭 확인	가끔 확인	확인안함	관심없다	계
성 별	남	12(4.92)	37(15.16)	23(9.43)	1(0.41)	73
	여	31(12.70)	106(43.44)	32(13.11)	2(0.82)	171
계		43	143	55	3	244
$\chi^2=4.930$ df=3 P>0.05						
연 령	30세이하	5(2.04)	15(6.12)	0(0.00)	0(0.00)	20
	31-40세	30(12.24)	90(36.73)	39(15.92)	3(1.22)	162
	41-50세	8(3.27)	40(16.33)	14(5.71)	1(0.41)	63
계		43	145	53	4	245
$\chi^2=8.125$ df=6 P>0.05						
학 력	중 졸	2(0.82)	13(5.31)	11(4.49)	2(0.82)	28
	고 졸	15(6.12)	56(22.86)	18(7.35)	2(0.82)	91
	대 졸	21(8.57)	62(25.31)	20(8.16)	0(0.00)	103
	대학원졸	4(1.63)	14(5.71)	5(2.04)	0(0.00)	23
계		42	145	54	4	245
$\chi^2=14.928$ df=9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19(7.72)	48(19.51)	18(7.32)	0(0.00)	85
	1 - 2 년	7(2.85)	32(13.01)	9(3.66)	1(0.41)	49
	3 - 4 년	12(4.88)	24(9.76)	8(3.25)	1(0.41)	45
	5 - 6 년	5(2.03)	42(17.07)	18(7.32)	2(0.81)	67
계		43	146	53	4	246
$\chi^2= 11.977$ df=9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5(2.02)	7(2.82)	8(3.23)	0(0.00)	20
	6 - 10년	6(2.42)	31(12.50)	14(5.65)	3(1.21)	54
	11 -15년	7(2.82)	21(8.47)	11(4.44)	0(0.00)	39
	15년이상	25(10.08)	87(35.08)	22(8.87)	1(0.41)	135
계		43	146	55	4	248
$\chi^2=17.580$ df=9 P<0.05						

앞의 표20에서 나타내 보이는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17.50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6.919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연령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4.930, 8.125, 14.928, 11.977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9, 12.592, 16.919,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위 검증 학습내용을 가정에서 확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248명의 부모중 76%만이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는 확인을 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년수 15년 이상된 부모 또한 9%에 해당하는 부모 23명이 확인을 않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검증의 많은 부모들이 그날의 공과내용이나 설교내용을 검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21) 교회학교 교사의 만족도에 관하여

()%

구 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
성 별	남	6(2.46)	32(13.11)	36(14.75)	2(0.82)	76
	여	22(9.02)	89(36.48)	56(22.95)	1(0.41)	168
계		28	121	92	3	244
$\chi^2=6.979$ df=3 P>0.05						
연 령	30세이하	1(0.41)	13(5.31)	5(2.04)	0(0.00)	19
	31-40세	22(8.98)	81(33.06)	59(24.08)	1(0.41)	163
	41-50세	5(2.04)	31(12.65)	25(10.20)	2(0.82)	63
계		28	125	89	3	245
$\chi^2=6.545$ df=6 P>0.05						
학 력	중 졸	3(1.22)	16(6.53)	11(4.49)	0(0.00)	30
	고 졸	9(3.67)	44(17.96)	36(14.69)	1(0.41)	90
	대 졸	12(4.90)	52(21.22)	36(14.69)	2(0.82)	102
	대학원졸	4(1.63)	13(5.31)	6(2.45)	0(0.00)	23
계		28	125	89	3	245
$\chi^2=3.327$ df=9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15(6.10)	47(19.11)	22(8.94)	1(0.41)	85
	1 - 2 년	2(0.81)	28(11.38)	17(6.91)	1(0.41)	48
	3 - 4 년	7(2.85)	21(8.54)	18(7.32)	0(0.00)	46
	5 - 6 년	4(1.63)	28(11.38)	34(13.82)	1(0.41)	67
계		28	124	91	3	246
$\chi^2=16.888$ df=9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0(0.00)	13(5.22)	7(2.81)	0(0.00)	20
	6 - 10년	5(2.01)	27(10.84)	23(9.24)	1(0.40)	56
	11 -15년	2(0.80)	19(7.63)	18(7.23)	0(0.00)	39
	15년이상	21(8.43)	67(26.91)	44(17.67)	2(0.80)	134
계		28	126	92	3	249
$\chi^2=9.814$ df=9 P>0.05						

앞의 표21에서 나타내 보이는 성별, 연령, 학력, 자녀학년,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6.979, 6.545, 3.327, 16.888, 9.814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12.592, 16.919, 16.919,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교사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질문에 전체 249명의 부모중 62% 154명만이 교회학교 교사에 대한 가르침에 만족하고 있으며 보통이라 대답한 부모는 37%인 92명이며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도 1%에 해당하는 3명의 부모가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무엇을 기대하기 보다는 매주 자녀를 맡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22) 교회학교 교사의 심방에 관하여

()%

구 분		매우원한다	원한다	원하지않는다	전혀않는다	계
성 별	남	18(7.50)	40(16.67)	18(7.50)	0(0.00)	76
	여	27(11.25)	110(45.83)	25(10.42)	2(0.83)	164
계		45	150	43	2	240
$\chi^2=6.169$ df=3 P>0.05						
연 령	30세이하	6(2.49)	14(5.81)	1(0.41)	0(0.00)	21
	31-40세	33(13.69)	94(39.00)	31(12.86)	1(0.41)	159
	41-50세	7(2.90)	42(17.43)	11(4.56)	1(0.41)	61
계		46	150	43	2	241
$\chi^2=6.809$ df=6 P>0.05						
학 력	중 졸	2(0.83)	17(7.02)	10(4.13)	1(0.41)	30
	고 졸	15(6.20)	61(25.21)	12(4.96)	1(0.41)	89
	대 졸	16(6.61)	66(27.27)	17(7.02)	0(0.00)	99
	대학원졸	14(5.79)	7(2.89)	3(1.24)	0(0.00)	24
계		47	151	42	2	242
$\chi^2=36.203$ df=9 P<0.001						
자 녀 학 년	유 치 원	25(10.33)	50(20.66)	13(5.37)	0(0.00)	88
	1 - 2 년	8(3.31)	32(13.22)	10(4.13)	0(0.00)	50
	3 - 4 년	6(2.48)	28(11.57)	6(2.48)	1(0.41)	41
	5 - 6 년	6(2.48)	42(17.36)	14(5.79)	1(0.41)	63
계		45	152	43	2	242
$\chi^2=13.119$ df=9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1(0.41)	13(5.33)	6(2.46)	0(0.00)	20
	6 - 10년	10(4.10)	32(13.11)	11(4.51)	2(0.82)	55
	11 -15년	7(2.87)	21(8.61)	10(4.10)	0(0.00)	38
	15년이상	29(11.89)	85(34.84)	17(6.97)	0(0.00)	131
계		47	151	44	2	244
$\chi^2=15.216$ df=9 P>0.05						

앞의 표22에서 나타내 보이는 학력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36.203으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27.877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연령, 자녀학년,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6.169, 6.809, 13.119, 15.216으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12.592, 16.919,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교사의 아동방문에 관한 질문에 전체 244명의 부모중 81%인 198명의 부모가 아동방문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인 46명의 부모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개인을 중요시 하는 현대사회는 교회로부터 자녀를 위한 교사의 방문에 19%인 46명의 부모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우리라는 개념 보다는 나라는 개념속에서 남에게 나의 공간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주의 선행으로 보여진다.

(표23) 교회학교 교사의 심방횟수에 관하여

()%

구 분		매주1번	1달 1~2번	1년 1번	특별히초청시	계
성 별	남 여	7(3.00)	24(10.30)	12(5.15)	31(13.30)	74
		11(4.72)	65(27.90)	26(11.16)	57(24.46)	159
계		18	89	38	88	233
$\chi^2=1.854$ df=3 P>0.05						
연 령	30세이하	3(1.28)	9(3.85)	2(0.85)	7(2.99)	21
	31-40세	14(5.98)	60(25.64)	25(10.68)	57(24.36)	156
	41-50세	1(0.43)	22(9.40)	10(4.27)	24(10.26)	57
계		18	91	37	88	234
$\chi^2=5.320$ df=6 P>0.05						
학 력	중 졸	0(0.00)	14(5.98)	1(0.43)	12(5.13)	27
	고 졸	8(3.42)	29(12.39)	16(6.84)	36(15.38)	89
	대 졸	6(2.56)	40(17.09)	17(7.26)	33(14.10)	96
	대학원졸	4(1.71)	9(3.85)	4(1.71)	5(2.14)	22
계		18	92	38	86	234
$\chi^2=12.980$ df=9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9(3.81)	39(16.53)	10(4.24)	25(10.59)	83
	1 - 2 년	4(1.69)	14(5.93)	9(3.81)	21(8.90)	48
	3 - 4 년	3(1.27)	13(5.51)	8(3.39)	17(7.20)	41
	5 - 6 년	2(0.85)	24(10.17)	10(4.24)	28(11.86)	64
계		18	90	37	91	236
$\chi^2=9.808$ df=9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3(1.26)	5(2.10)	4(1.68)	8(3.36)	20
	6 - 10년	2(0.84)	21(8.82)	5(2.10)	24(10.08)	52
	11 -15년	5(2.10)	17(7.14)	2(0.84)	13(5.46)	37
	15년이상	8(3.36)	48(20.17)	27(11.34)	46(19.33)	129
계		18	91	38	91	238
$\chi^2=13.330$ df=9 P>0.05						

앞의 표23에서 나타내 보이는 성별, 연령, 학력, 자녀학년,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1.854, 5.320, 12.980, 9.808, 13.330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12.592, 16.919, 16.919,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방 횟수에 관하여 전체 238명의 부모 중 46%인 109명의 부모가 매주 1번에서 한달에 한 두번의 잦은 방문을 원했으며 특별히 초청할 때나 1년에 1번은 54%인 129명의 부모는 특별한 이유 외에는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맞벌이 부모들이 많아 부모들의 집에 잘 없으므로 타인의 방문을 받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24) 교회학교 교사와의 상담에 관하여

()%

구 분		자주있다	가끔있다	대체로안함	전혀없다	계
성 별	남	4(1.65)	31(12.76)	20(8.23)	18(7.41)	73
	여	10(4.12)	88(36.21)	37(15.23)	35(14.40)	170
계		14	119	57	53	243
$\chi^2=1.995$ df=3 P>0.05						
연 령	30세이하	2(0.82)	14(5.74)	2(0.82)	2(0.82)	20
	31-40세	11(4.51)	75(30.74)	33(13.52)	42(17.21)	161
	41-50세	1(0.41)	34(13.93)	19(7.79)	9(3.69)	63
계		14	123	54	53	244
$\chi^2=12.649$ df=6 P<0.05						
학 력	중 졸	0(0.00)	14(5.74)	6(2.46)	9(3.69)	29
	고 졸	4(1.64)	41(16.80)	21(8.61)	25(10.25)	91
	대 졸	6(2.46)	54(22.13)	23(9.43)	18(7.38)	101
	대학원졸	4(1.64)	12(4.92)	6(2.46)	1(0.41)	23
계		14	121	56	53	244
$\chi^2=14.737$ df=9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8(3.27)	40(16.33)	17(6.94)	20(8.16)	85
	1 - 2 년	4(1.63)	26(10.61)	9(3.67)	9(3.67)	48
	3 - 4 년	1(0.41)	22(8.98)	11(4.49)	11(4.49)	45
	5 - 6 년	1(0.41)	34(13.88)	19(7.76)	13(5.31)	67
계		14	122	56	53	245
$\chi^2=8.230$ df=9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0(0.00)	9(3.64)	3(1.21)	8(3.24)	20
	6 - 10년	2(0.81)	20(8.10)	15(6.07)	18(7.29)	55
	11 -15년	1(0.40)	19(7.69)	12(4.86)	8(3.24)	40
	15년이상	11(4.45)	76(30.77)	26(10.53)	19(7.69)	132
계		14	124	56	53	247
$\chi^2=19.655$ df=9 P<0.05						

앞의 표24에서 나타내 보이는 연령,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12.649, 19.655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2.592, 16.919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학력, 자녀학년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1.995, 14.737, 8.230으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16.919,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회학교 교사와의 대화가 적고 대체로 상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학력이 높아 지므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담한다거나 의견을 듣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누군가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좋아 하나 중요시해야 할 상대의 의견을 듣는 일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표현 하기는 좋아하나 듣는 훈련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표25) 부모교육에 관하여

()%

구 분		자주한다	가끔한다	대체로안함	전혀안함	계
성 별	남 여	2(0.85)	21(8.94)	22(9.36)	26(11.06)	71
		10(4.26)	50(21.28)	54(22.98)	50(21.28)	164
계		12	71	76	76	235
$\chi^2=1.692$ df=3 P>0.05						
연 령	30세 이하	0(0.00)	11(4.66)	8(3.39)	1(0.42)	20
	31-40세	10(4.24)	41(17.37)	49(20.76)	56(23.73)	156
	41-50세	1(0.42)	22(9.32)	17(7.20)	20(8.47)	60
계		11	74	74	77	236
$\chi^2=14.348$ df=6 P<0.05						
학 력	중 졸	1(0.42)	7(2.97)	11(4.66)	8(3.39)	27
	고 졸	4(1.69)	22(9.32)	28(11.86)	35(14.83)	89
	대 졸	4(1.69)	38(16.10)	32(13.56)	25(10.59)	99
	대학원졸	3(1.27)	5(2.12)	5(2.12)	8(3.39)	21
계		12	72	76	76	236
$\chi^2=11.612$ df=9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5(2.11)	32(13.50)	26(10.97)	20(8.44)	83
	1 - 2 년	4(1.69)	10(4.22)	16(6.75)	15(6.33)	45
	3 - 4 년	2(0.84)	12(5.06)	14(5.91)	15(6.33)	43
	5 - 6 년	1(0.42)	18(7.59)	21(8.86)	26(10.97)	66
계		12	72	77	76	237
$\chi^2=9.267$ df=9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2(0.83)	6(2.49)	5(2.07)	6(2.49)	19
	6 - 10년	1(0.41)	13(5.39)	22(9.13)	18(7.47)	54
	11 -15년	2(0.83)	13(5.39)	13(5.39)	11(4.56)	39
	15년이상	7(2.90)	42(17.43)	38(15.77)	42(17.43)	129
계		12	74	78	77	241
$\chi^2=5.251$ df=9 P>0.05						

앞의 표25에서 나타내 보이는 연령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14.348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2.592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학력, 자녀학년,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1.692, 11.612, 9.267, 5.251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16.919, 16.919,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부모교육에 대한 질문에 전체 241명의 부모중 부모대상 교육을 대체로 하지 않거나 전혀 없는 교회가 64%에 해당하는 155명이 응답했으며 가끔하는 교회는 30%에 해당하는 74명이며 자주하는 교회는 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교육이 저조한 상태임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교회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적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대부분의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장식에 치우치고 대외적인 행사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나 교회학교 교육에는 간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최대의 큰 투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10년을 바라보고 하는 미래 투자사업과도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짧은 투자에 큰 결실을 얻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문제이다.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재직들의 교회학교 교육에 열린 시선이 필요하다.

(표26) 부모교육의 횟수에 관하여

()%

구 분		매주1번	1달에1~2번	분기별1~2번	1년에1~2번	계
성 별	남	2(0.84)	15(6.28)	30(12.55)	27(11.30)	74
	여	9(3.77)	48(20.08)	74(30.96)	34(14.23)	165
계		11	63	104	61	239
$\chi^2=7.614$ df=3 P>0.05						
연 령	30세이하	4(1.67)	6(2.50)	8(3.33)	3(1.25)	21
	31-40세	6(2.50)	41(17.08)	67(27.92)	43(17.92)	157
	41-50세	1(0.42)	15(6.25)	29(12.08)	17(7.08)	62
계		11	62	104	63	240
$\chi^2=12.686$ df=6 P<0.05						
학 력	중 졸	1(0.41)	7(2.90)	9(3.73)	13(5.39)	30
	고 졸	6(2.49)	29(12.03)	32(13.28)	21(8.71)	88
	대 졸	3(1.24)	25(10.37)	50(20.75)	21(8.71)	99
	대학원졸	1(0.41)	2(0.83)	13(5.39)	8(3.32)	24
계		11	63	104	63	241
$\chi^2=15.211$ df=6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4(1.65)	25(10.33)	42(17.36)	17(7.02)	88
	1 - 2 년	4(1.65)	10(4.13)	15(6.20)	19(7.85)	48
	3 - 4 년	0(0.00)	14(5.79)	21(8.68)	8(3.31)	43
	5 - 6 년	2(0.83)	13(5.37)	28(11.57)	20(8.26)	63
계		10	62	106	64	242
$\chi^2=14.902$ df=9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3(1.23)	6(2.46)	5(2.05)	6(2.46)	20
	6 - 10년	2(0.82)	20(8.20)	15(6.15)	17(6.97)	54
	11 -15년	3(1.23)	11(4.51)	16(6.56)	7(2.87)	37
	15년이상	3(1.23)	26(10.66)	69(28.28)	35(14.34)	133
계		11	63	105	65	244
$\chi^2=20.777$ df=9 P<0.05						

앞의 표26에서 나타내 보이는 연령,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12.682, 20.777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2.592, 16.919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학력, 자녀학년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7.614, 15.211, 14.902로 이들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16.919,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 횟수에 대한 질문에 분기별로 한두번 원하는 부모가 전체244명의 부모중 43%인 105명이 응답했으며 한달에 한번과 일년에 한두번을 원하는 부모또한 26%와 27%로 나타났으며 매주한번씩 원하는 부모는 11명의 부모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7) 교회의 가정교육에 관한 자료제공 여부에 관하여 ()%

구 분		잘제공	가끔제공	대체로않는다	전혀않는다	계
성 별	남	15(6.30)	21(8.82)	26(10.96)	12(5.04)	74
	여	40(16.81)	60(25.21)	42(17.65)	22(9.24)	164
계		55	81	68	34	238
$\chi^2=3.283$ df=3 P>0.05						
연 령	30세이하	3(1.26)	11(4.60)	6(2.51)	0(0.00)	20
	31-40세	42(17.57)	53(22.18)	43(17.99)	22(9.21)	160
	41-50세	10(4.18)	20(8.37)	18(7.53)	11(4.60)	59
계		55	84	67	33	239
$\chi^2=8.679$ df=6 P>0.05						
학 력	중 졸	6(2.51)	9(3.77)	8(3.35)	6(2.51)	29
	고 졸	17(7.11)	30(12.55)	25(10.46)	16(6.69)	88
	대 졸	30(12.55)	36(15.06)	26(10.88)	8(3.35)	100
	대학원졸	2(0.84)	8(3.35)	9(3.77)	3(1.26)	22
계		55	83	68	33	239
$\chi^2=10.828$ df=9 P>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23(9.54)	35(14.52)	20(8.30)	8(3.32)	86
	1 - 2 년	12(4.98)	13(5.39)	12(4.98)	9(3.73)	46
	3 - 4 년	12(4.98)	14(5.82)	11(4.56)	6(2.49)	43
	5 - 6 년	8(3.32)	20(8.30)	27(11.20)	11(4.56)	66
계		55	82	70	34	241
$\chi^2=13.657$ df=9 P>0.05						
신 앙 년 수	1 -5 년	6(2.46)	5(2.05)	5(2.05)	4(1.64)	20
	6 - 10년	11(4.51)	23(9.43)	12(4.92)	8(3.28)	54
	11 -15년	12(4.92)	10(4.10)	11(4.51)	6(2.46)	39
	15년이상	27(11.07)	46(18.85)	42(17.21)	16(6.56)	131
계		56	84	70	34	244
$\chi^2=6.695$ df=9 P>0.05						

앞의 표27에서 나타내 보이는 성별, 연령, 자녀학년,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3.283, 8.679, 10.808, 13.657, 6.695로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12.592, 16.919, 16.919, 16.919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자료제공에 관한 질문에 전체 244명의 부모중 57%인 140명의 부모는 교육자료를 교회에서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3%인 104명의 부모는 대체로 교육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아직 교회에 교육 프로그램만을 위해 연구하는 담당이 없기 때문이다. 작은교회 일수록 1인 2역에서 5역까지 해야하는 실정이므로 교육자료를 잘 제공하지 못하고 때론 맡은 일 조차 실행하기 어렵다.

교육을 담당하는 전도사님들은 슈퍼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교사 또한 부모님들은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만능인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담당자들의 부담이 늘고있는 실정이다.

(표28) 교회로부터 제공받기 원하는 프로그램에 관하여 ()%

구 분		성경공부	기도찬송	가정예배	신앙지도방법	계
성 별	남	18(7.32)	9(3.66)	8(3.25)	40(16.26)	75
	여	29(11.79)	17(6.91)	11(4.47)	114(46.34)	171
계		47	26	19	154	246
		$\chi^2=4.252$		df=3	P>0.05	
연 령	30세이하	8(3.24)	1(0.40)	1(0.40)	11(4.45)	21
	31-40세	27(10.93)	17(6.88)	13(5.26)	106(42.91)	163
	41-50세	12(4.86)	7(2.83)	5(2.02)	39(15.79)	63
계		47	25	19	156	247
		$\chi^2=5.953$		df=6	P>0.05	
학 력	중 졸	8(3.24)	5(2.02)	1(0.41)	15(6.07)	29
	고 졸	13(5.26)	11(4.45)	4(1.62)	64(25.91)	92
	대 졸	21(8.50)	7(2.83)	10(4.05)	64(25.91)	102
	대학원졸	5(2.02)	1(0.41)	4(1.62)	14(5.67)	24
계		47	24	19	157	247
		$\chi^2=12.624$		df=9	P>0.005	
자 녀 학 년	유 치 원	17(6.85)	6(2.42)	7(2.82)	58(23.39)	88
	1 - 2 년	7(2.82)	5(2.02)	2(0.81)	35(14.11)	49
	3 - 4 년	7(2.82)	6(2.42)	3(1.21)	28(11.29)	44
	5 - 6 년	17(6.85)	9(3.63)	4(1.61)	37(14.92)	67
계		48	26	16	158	248
		$\chi^2=$		df=	P	
신 앙 년 수	1 -5 년	3(1.20)	3(1.20)	2(0.80)	12(4.80)	20
	6 - 10년	7(2.80)	10(4.00)	3(1.20)	34(13.60)	54
	11 -15년	9(3.60)	4(1.60)	6(2.40)	21(8.40)	40
	15년이상	28(11.20)	9(3.60)	8(3.20)	91(36.40)	136
계		47	26	19	158	250
		$\chi^2=12.274$		df=9	P0.05	

앞의 표28에서 나타내 보이는 성별, 연령, 학력, 자녀학년, 신앙년수의 경우는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이 4.252, 5.953, 12.624, 6.329, 12.274로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 6.695, 16.919, 16.919, 16.919 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제공받고 싶은 교육자료에 대한 질문에 전체 250명의 부모중 62%에 해당하는 158명의 부모가 어린이 신앙 지도방법에 관한 자료를 얻기 원하며 다음으로 성경공부 19%, 기도찬송 10%, 가정예배 9% 순으로 나타나 신앙 지도방법에 대한 자료의 공급을 많은 부모들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교육 자료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그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울 때가 많다. 그 이유는 분명 좋은방법들이지만 우리 실정과는 상관없는 외국서적의 번역서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실정으로 바뀌지 않은 채 서양문화의 방법대로 하려할 때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좋은 것을 많이 알고 있어도 지도하는 방법이 미흡하거나 할 줄을 몰라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 전체 항목별 분석 및 결과논의

본 연구는 예배, 가정환경및 신앙생활, 신앙교육의 관심 가정교육으로 나누어 전체 분석하고자 한다. 기독교 가정의 부모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으므로 대체적으로 자녀의 신앙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통계결과로 나타났다.

현대의 바쁜 생활이 가정에도 미쳐 과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육받던 시대와는 달리 인스턴트 문화에 익숙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크리스찬 부모보다는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아직은 인스턴트 문화에 깊숙이 접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본 설문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의 자녀를 둔 젊은 부모만을(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일 나이라고 생각되어)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1) 예배에 대한 관심도

첫째로 1문항~6문항은 응답자들에게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교회 출.결과 교회 결석시 부모의 반응및 가정예배에 대한 질문에 부모는 비교적 94%의 좋은 출석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 또한 96%의 좋은 출석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석 이유에서는 아직까지도 유교와 불교문화에 깊숙한 우리사회 풍습으로 인한 집안의 애경사(제사, 결혼)문제로 결석율이 높으며 그 이유는 바빠진 현대인들이 주일에 모든 행사를 몰려 행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가정예배에서도 비교적 71%의 좋은 예배습관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이 가정예배를 중요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가정환경 및 신앙생활

둘째로 가정환경 및 신앙생활을 조사하고자 7문항~15문항의 질문에는 기도생활, 말씀, 찬송생활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비교적 젊은 30~40 부모들이 모든 생활에 적극적인 반응들이 나타났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응답자의 51%가 30~40대 부모로 신앙생활의 깊은 관심을 갖고 자녀와의 대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기도 응답에 관한 질문에 6~10, 11~15년 신앙생활을 해온 부모중에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인스턴트 문화에 익숙한 부모가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조급히 생각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과거에 비해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또한 20~30대와 40~50대의 부모보다는 30~40 부모들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신앙교육(가정교육)의 관심도

셋째로 16~28번의 문항으로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관심(가정교육)에 대한 질문으로 부모의 관심, 교회의 관심, 부모와 교사, 부모와 교회 또한 자료에 대한 질문으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모님들이 기독교 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며 교육방법또한 어색하여 아이들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교회도 마음은 어린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나 실제 투자 문

제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며 부모교육과 자녀교육에 관한 자료 또한 우리가 소히 말하는 대형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들이 교회서 마련된 교육과 교회 학교 교사와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하나 우리 나라 교회의 실정이 또한 교사의 수준이 아직은 교육과 상담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때론 교사나 교회도 기독교 가정교육(기독교 교육)에 대하여 알지못하고 일반 교육을 시킬때가 있으며 대형교회 또한 일반 교육의 자료를 제공할때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설문결과로 나타나 부모교육에 대해서도 개교회가 많은 횟수의 교육을 할 수 없다면 분기별로 하여 고갈된 부모들에게 충분히 채워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우면 기독교 가정에 교회가 가정에서의 어린이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가정에서 자녀의 신앙교육 특성의 그 본래의 뜻과 교육적 내용 및 방법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요 약

1)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교회 출.결과 교회 결석시 부모의 반응 및 가정예배에 대한 질문에 부모는 비교적 94%의 좋은 출석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 또한 96%의 좋은 출석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석 이유에서는 아직까지도 유교와 불교문화에 갇혀있는 우리사회 풍습으로 인한 집안의 애경사(제사, 결혼)문제로 결석율이 높으며 그 이유는 바빠진 현대인들이 주일에 모든 행사를 몰려 행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가정예배에서도 비교적 71%의 좋은 예배습관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이 가정예배를 중요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가정환경 및 신앙생활에 관한 질문에는 기도생활, 말씀, 찬송생활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비교적 젊은 30~40 부모들이 모든 생활에 적극적인 반응들이 나타났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 응답자의 51%가 30~40대 부모로 신앙생활의 깊은 관심을 갖고 자녀와의 대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기도응답에 관한 질문에

6~10, 11~15년 신앙생활을 해온 부모중에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인스턴트 문화에 익숙한 부모가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조급히 생각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과거에 비해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또한 20~30대와 40~50대의 부모보다는 30~40 부모들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많은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이 본인대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것 보다는 과거 조상으로 부터 믿어온 가정의 부모들이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로 부터 받은 신앙교육이 그들의 후손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좋은 현상이 나타났다.

3)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관심(가정교육)에 대한 질문으로 부모의 관심, 교회의 관심, 부모와 교사, 부모와 교회 또한 자료에 대한 질문으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모님들이 기독교 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며 교육방법또한 어색하여 아이들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교회도 마음은 어린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나 실제 투자 문제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며 부모교육과 자녀교육에 관한 자료 또한 우리가 소히 말하는 대형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들이 교회서 마련된 교육과 교회 학교 교사와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하나 우리 나라 교회의 실정이 또한 교사의 수준이 아직은 교육과 상담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때론 교사나 교회도 기독교 가정교육(기독교 교육)에 대하여 알지못하고 일반 교육을 시킬때가 있으며 대형교회 또한 일반 교육의 자료를 제공할때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설문결과로 나타나 부모교육에 대해서도 개교회가 많은 횟수의 교육을 할 수 없다면 분기별로 하여 고갈된 부모들에게 충분히 채워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우면 기독교 가정에 교회가 가정에서의 어린이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결 론

우리내 가정은 앞서도 다룬 바와 같이 일반 가정과는 현저한 차이를 갖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 가정은 단순히 자연적 심리적 사회적인 용어의 의미를 넘어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의 가정교육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부모는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설문결과와 본 연구를 통해 아직은 살아있고 희망이 있는 가정의 기독교 교육을 바라볼수 있었다. 그것은 바쁜 현대사회에서도 바른 신앙생활습관을 갖고 자녀에 대한 깊은 기독교 교육의 관심을 보여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욕구에 대해서 교회는 공급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 더많은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가정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공급을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어지며 부모 또한 교회가 긴장되도록 더 많은 교육자료를 교회로부터 요

구해야 한다. 그러나 가정이 살아 있는 교육의 장(場)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도 중요하지만 교육방법이 중요하다.

가정교육은 비형식적이고 무의도적인 교육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경험에 의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정분위기와 부모의 일상적 언어와 부모의 삶 자체를 가정교육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여러 방법과 놀이를 통해 성경을 해석하고 서로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런 기독교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바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제 그만 자녀들을 사교육장으로 내몰고 다시 가정에서의 교육을 중요시할 때라 생각되어진다. 높은 교육열에 달하기 위해 애쓰는 자녀들은 때론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로 꽃봉우리가 피기도 전에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제 가정에서의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회와 가정은 공동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은 다른 어떠한 나라의 어린이들 보다 행복하고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갖는 교육열은 세계의 어느 선진국의 부모님들 못지 않아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뒷바라지 해주기 때문이다. 때론 목적이 없는 무분별한 교육열로 인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갈등하고 좌절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

우리 나라 어린이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목적이 있는 가정교육을 받는다면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경험하도록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인

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는 누구보다도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가정은 다같이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 교회는 가정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하고, 가정은 교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가정의 어린이 신앙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場)이 되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參考 文獻

<국내도서>

- 함 성 환. 현대교회와 가정교육, 서울 : 도서출판 그루터기, 1984.
- 전 풍 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기독교교육, 1987.
- 전 풍 자. 가정교육론, 서울 : 기독교교육협회, 1984.
- 정은숙.이은숙. 기독교 가정교육학, 엠마오, 1987.
- 정 정 숙.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 도서출판 베다니, 1994.
- 이 근 삼. 칼빈. 칼빈주의, 부산 : 고신대출판부, 1972.
- 김 남 식. 기독교에서 본 문화, 서울 :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72.
- 총회교육국.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1994.
- 방 현 덕. 기독교 가정 교육론, 바울서신사, 1993.
- 김 천 일. 교육원리, 서울 : 학문사, 1973.
- 오 인 탁. 기독교교육, 서울 :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84.
- 주 선 애. 교회교육에 있어서의 부모교육, 교회교육 통권 92,
서울 : 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연구원, 1983. 5월.
- 은 준 관. 교육신학,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76.
- 김 재 은. 가정교육, 서울 : 조선일보 사회부. 1981.
- 이 규 환. 교육사회학, 서울 : 배영사 1984.
- 은 준 관. 교육신학,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79.
- 함 인 순. 유아교육원리, 서울 : 동문사. 1982.
- 유효순.정원식. 부모교육,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4.
- 은 준 관. 교육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8.
- 김 은 산. 오늘의 가정은 어디에, 새가정 제 259호, 1977. 5월.

오인택·은준관·정웅섭·고용수·김재은(편저). 기독교교육론,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협회, 1985.

변 한 규. 짚막한 신학(1), 서울 : 한국로고스 연구원, 1990.

손 승 회. 기독교 교육의 발달이론적 기초, 「기독교교육론」 서울 :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84.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9.

김 태 원. 교회의 교육적사명, 서울 :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85.

김 주 숙. 사회변화와 가족형태. 기독교사상 1985. 5월호.

<논문>

김 윤 기. 가정생활의 변화를 위한 설교연구. 목원대학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0.

변 영 인. 가정사역의 필요성과 그 현황에 관한 연구, 고신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3.

마 은 회. 유아를 위한 기독교 가정교육. 총신대학원 석사논문, 1994.

정 제 민. 기독교가정교육에서의 어린이 교육연구. 목원대학.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88.

김 용 호.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의 가정교육 연구,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석사논문, 1985.

<국외도서>

Emile Brunner. The Divine Impertive, London : Lutter Worth Press, 1985.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Philadelphia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59

Lewis Joseph Sherrill, The Gift of Power, New York : The Macmillan Co.,
1967.

William. J. Goods, The Family, N.J : Prentice Hall. 1961.

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 Macmillan
Co., 1944.

Loves e. Raiths, An Application to Education of the Needs Theory,
H.Fleck, Toward Better Teaching of H.E., The Mac Millan
Co., 1968

Bert N. Adams, The Family : A Socioloical Interpretation,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80.

James W. Fowler, Stages of Faith, San Francisco : Harper & Row
Publishers, 1981.

Lewis J Sherrill. The Gift of Power,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59.

裕宗省三, 子どもの 社會心理, 東京 : 金子書房, 1982.

<번역서>

E. Brunner. 정의사회질서. 전택부역, 평민사, 1976.

Norman E. Harper, 제자훈련을 통한 현대 기독교교육. 이승구역, 서 울
: 엠마요, 1984.

Edward J. Hakes. 기독교교육학개론, 정정숙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84.

Edward J. Hakes. 기독교교육학개론, 정정숙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87.

Robert Schuller. 행복한 가정 창조의 비결, 권명달 역, 서울 : 보이스사.

L.V CULLY. 어린이와 교회와 기독교교육, 서광선 역. 대한기독교교육 협회 1975년.

Larry Christenson. 크리스찬의 가정생활. 김용순역, 서울: 보이스사,1982.

T.B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이석철 역, 서울 : 요단출판사,1991.

Comenius, 대교수학, 정확실 역, 서울 : 교육과학사, 1989.

Edith Schaeffer, 가정이란 무엇인가. 양은순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1981.

G.M Schreyer, Christian Education Theological Focus, 채위 역. 신학과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9.

Irios V. Cully. Chillren in the Church. 서광선 역. 어린이와 교회와 기독교교육, 서울 :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9.

<附錄>

설 문 지

안녕 하십니까?

다음은 기독교 가정 자녀의 어린이 신앙 교육연구를 위한 설문지입니다.

이 설문지는 귀하의 의견을 참고로하여 기독교 어린이 교육을 위한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교회와 가정에 좀더 나은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있는 응답을 기대하오며 여기에 쓰여지는 결과는 본 연구의 통계 자료에만 쓰일것이며 본 연구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하나씩만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 2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학전공

장 은 옥 올림

< 배경사항 >

※ 다음 해당란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별 : ① 남 () ② 여 ()
2. 연 령 : ① 30세 이하() ② 31~40세() ③ 41~50세이상()
3. 학 력 : ① 중학교졸() ② 고등학교졸()
 ③ 대학교졸() ④ 대학원졸()
4. 자녀 학년 : ① 유 치 원() ② 1~2학년()
 ③ 3~4학년() ④ 5~6학년()
5. 신앙 년수 : ① 1 ~ 5년() ② 6~10 년()
 ③ 11~15년() ④ 15년이상()

1. 귀하의 교회 출석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① 집회때 마다 잘 나간다() ② 잘 나가는 편이나 가끔 결석할 때도 있다()
③ 가끔 나가는 편이다() ④ 일년에 몇번 나간다()
2. 귀하가 교회에 결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직장의 일 때문이다() ② 가정의 일 때문이다()
③ 친척의 애경사 때문이다() ④ 그냥 나가고 싶지 않아서이다()
3. 귀하의 자녀들은 교회에 잘 나가고 있습니까?
① 잘 나가고 있다() ② 잘 나가는 편이나 가끔 결석할 때도 있다()
③ 가끔 나가는 편이다() ④ 일년에 몇번 나간다()
4. 자녀들이 교회에 결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공부 때문이다() ② 학교 일 때문이다()
③ 집안 일 때문이다() ④ 놀러가기 때문이다()

5.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기를 싫어할 때는?

- ① 꾸중해서라도 보낸다() ② 타일러서 보낸다()
③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④ 무관심하다()

6. 귀하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립니까?

- ① 매일 드린다() ② 일주일에 2~3번 드린다()
③ 특별한 경우에만 드린다() ④ 안드린다()

7. 귀하는 귀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까?

- 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길 위해서() ② 자녀들을 위해서()
③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④ 물질 축복 받기 위해서()

8.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까?

- ① 언제나 꼭 들어주신다() ② 가끔 들어주신다()
③ 전혀 응답이 없다() ④ 언젠가는 들어 주실 것이다()

9. 귀하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 ① 규칙적으로 읽는다() ② 가끔 읽는다()
③ 가정에서 전혀 읽지 않는다() ④ 직장에서 틈틈이 읽는다()

10.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① 모르는 것이 많다() ② 모르는 것이 가끔 있다()
③ 모르는 것이 전혀 없다() ④ 무작정 읽는다()

11. 귀하는 평소 가정에서 찬송을 부르십니까?

- ① 언제나 부른다() ② 가끔 부른다()
③ 대체로 부르지 않는다() ④ 전혀 부르지 않는다()

12. 귀하는 자녀들과 대화를 하십니까?

- ① 많이 한다() ② 가끔 한다()
③ 대체로 대화가 없는 편이다() ④ 전혀 없는 편이다()

13. 귀하는 자녀들에게 실망을 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많이 있다() ② 가끔 있다()
 ③ 거의 없다() ④ 아주 없다()
14. 자녀에게 실망을 주었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성경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②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③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④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5. 귀하는 부부(남편, 아내)가 함께 교회에 나가십니까?
 ① 함께 나간다() ② 가끔 함께 나간다()
 ③ 함께 나가지 않는다() ④ 전혀 함께 나가지 않는다()
16. 가정에서 어린이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까?
 ① 잘 시키고 있다() ② 가끔 시키는 편이다()
 ③ 대체로 시키지 못한다() ④ 전혀 시키지 못하고 있다()
17. 가정에서 어린이 기독교교육을 행하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① 시간이 없다() ② 기독교 교육내용을 모른다()
 ③ 기독교 교육방법을 모른다() ④ 관심이 없다()
18. 귀하는 교회학교의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까?
 ① 매우 관심 있다() ② 보통이다()
 ③ 관심 없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19. 귀하는 어린이 교회학교 교육 및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자주 있다() ② 가끔 있다()
 ③ 대체로 참여하지 않는다() ④ 전혀 없다()

20. 어린이가 교회학교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가정에서 확인합니까?
 ① 꼭 확인한다() ② 가끔 확인한다()
 ③ 확인하지 않는다() ④ 관심 없다()
21. 교회학교 교사가 귀하의 자녀를 가르치는 가르침에 만족 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22. 교회학교 교사가 귀하의 가정에 방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① 매우 원한다() ② 대체로 원한다()
 ③ 원하지 않는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23. 교회학교 교사가 방문하기를 원한다면 그 횟수 정도는?
 ① 매주 1번() ② 1달에 1~2번()
 ③ 1년에 1번() ④ 특별히 초청할 때()
24. 어린이 기독교 교육문제로 교회학교 교사와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자주 있다() ② 가끔 있다()
 ③ 대체로 하지 않는다() ④ 전혀 없다()
25. 교회에서 어린이 기독교 교육에 관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① 자주 한다() ② 가끔 한다()
 ③ 대체로 하고 있지 않다() ④ 전혀 하지 않는다()
26.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면 횟수의 정도는?
 ① 매주 1번() ② 1달에 1~2번()
 ③ 분기별로 1~2번() ④ 1년에 1~2번()

27. 귀하의 교회에서는 가정에서의 어린이 교육을 위한 자료를 잘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 ① 잘 제공한다() ② 가끔 제공한다()
③ 대체로 제공해 주지 않는다() ④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28. 어린이 지도를 위해서 교회로부터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원하십니까?

- ① 성경공부() ② 기도, 찬송()
③ 가정예배() ④ 어린이 신앙지도 방법()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 Consideration for the Characteristic of Belief Training of the Christian Children

Jang , Eun - Ouk

Majoring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intend to consideration about natural meanings of belief training, content of belief training and teaching method of the christian children.

We, christian family, have certain differency with current families because we aimed to God's willing and his purpose who creation our family and he give it's sense to us over the natural and psychological word, thus we need to follow the faithful forefathers did which descripted in the Scripture. It knownd to us that all of the parents have duty to teaching their own childrens to go rightway from the following of God's will not a parent's.

Through this study, we find that exist of hopeful and live christian home training for their children. Also thanks for to find out of they keep deep interest and righteous custom in faithfull life about children's belief training eventhough they live in so confused modern society.

But the result of this study appeared that the church training system were didn't enough prepare to fulfill of parents demandant and it still remain as requirement of continued investment for Sunday school.

Furthermore, it need not only more study to provide enriched educational materials to the household but also parents need to require of educational materials to the church for the purpose of it's strain. On the otherhand, teaching method was most important over the teaching content as the living educational place at home. The training among human relationship through detailed experiance was very important because most of home training has been doing unformal and without intension. Another important factor are to set the teaching method with homey atmosphere and parent's current spoke language and their life itself.

From the various of life style and playing the game of the children, they can understand the Bible and practice the education with natural through their conversation each others. Eventhough we live in so tight modern society, we must consider again about our home training instead of depend on private education facilities because that bring about the result of the flower was fallen before blossom by the reason of their parent's greediness of educational achievement.

Both of church and home had required to put cooperated effort to structure the children's educational environment with acknowledgement

of importance of home training.

It considered that the Korean childrens have feel more comfort and happiness environment than another countries because Korean parents support everything by the educational enthusiasm which is not less than advanced countries. Additionally, sometimes we can see the childrens fall the confusion or broken his vision due to without purpose and non-distinguished educational fever of the adults. Certainly we assure that in case of our children could enjoy the home training with a definite purpose in the territory of home, it will be more helpful to live their better further life.

The parents must effort to growing their childrens as faithful christian with experience of Salvation from God and face to face in human relation and experience of Holly Sprit who live and work in our life. Both of home and church as consists of Christ's body who have important mission must cooperate each other such as the church provide concerned materials to home and home doing effort it's educational function to make a effective home training for their childrens.